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신라적 변용과 특성

이 숙 희*

- I. 머리말
- II. 지권인 불좌상의 연원과 존명 문제
- III. 통일신라시대 지권인 불상의 도상과 신라적 변용
- IV. 맺음말

I. 머리말

비로자나불상은 8세기 중엽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9세기 중엽 이후의 통일신라 후기에 크게 유행하였던 불상형식이다. 그 연원은 인도와 중국에 두고 있는 것으로 원래 대승불교 경전인 『화엄경』의 법신불에서 발전한 개념이나 지권인의 수인은 중기밀교의 경전인 『금강정경』에서 채용하여 형상화된 것으로 밀교의 양계만다라 중에서 금강계의 본존불인 대일여래와 관련 있는 상이다. 이와 같이 금강계 대일여래의 도상이 화엄의 비로자나불상에 수용되어 통일신라시대에 널리 신앙되었다는 점은 화엄사상과 밀교가 융합되는 당시 불교사적인 배경에 따른 것으로 신라적인 변용의 한 예로 해석된다.

* 인천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은 현재 약 50점이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독존의 여래형 지권인상이며 간혹 법수사와 불국사의 삼존불상이나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합과 청암사 수도암 삼층석탑의 초층탑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五方佛의 하나로 등장하는 예도 있다. 그중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조상기를 가지고 있는 상으로는 859년명의 보림사 비로자나불상과 865년명의 도피안사 비로자나불상 2구밖에 없었으나 최근에 불상 복장물에서 발견된 묵서명에 의해 883년의 조성연대가 밝혀진 해인사의 비로자나불상이 있다. 반면에 불상의 대좌나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호의 명문에 의해 간접적으로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예는 766년의 석남사 비로자나불상을 비롯하여 863년의 동화사 비로암 비로자나불상 및 금동사리합의 비로자나불상, 867년의 취서사 비로자나불상 등이 있다.

비로자나불상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보림사와 도피안사 불상의 조상기를 검토하여 그 제작연대를 추정하는 간략하고 짧은 두 편의 글이 나온 바 있다.¹ 그 후 1968년부터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면서 수십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특정한 상들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인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766년의 명문을 가진 석남사 지권인상이 발견되면서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성립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고찰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² 최근에는 화엄으로서의 성격만 강조되어 왔던 비로자나불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그 도상은 인도와 중국에서 비롯되었으며 밀교계 경전에 근거하고 있다는 보다 확대된 시각을 제시한 논문도 나왔다.³

이 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연원을 인도와 중국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 도상과 존명문제는 문헌상의 기록이나 밀교경전상의 내용과 연관시켜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그 다음,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시대별에 따른 형식 및 양식적 특징을 우선 머리 형태에 따라 보살형, 여래형, 보관여래형으로 크게 나누고 지권인의 형태에 의해 다시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수용과

¹ 今西 龍, 「到彼寺佛像調査記」, 『新羅史研究』(京城: 近澤書店, 1933. 6), pp.577-584; 中吉功, 「造像銘のある新羅の鐵佛二種—高麗佛の先驅的彫像—」, 『朝鮮學報』 12號(1958. 3), pp.97-110.

² 姜友邦, 「韓國 毘盧遮那佛像의 成立과 展開—圓融의 圖像的 實現—」, 『美術資料』 44호(1989. 6), pp.1-66; 文明大, 「智拳印 毘盧遮那佛의 成立問題와 石南巖寺 毘盧舍那佛像의 研究」, 『佛教美術』 11호(1992. 12), pp.55-89; 朴亨國, 「韓國統一新羅時代後期の石造毘盧遮那佛坐像について—洛東江中・上流地域(慶尙北道地方)を中心に—」, 『美術史』 139호(1996), pp.44-67.

³ 金理那·李淑姬, 「統一新羅時代 智拳印 毘盧舍那佛像 研究의 爭點과 問題」, 『美術史論壇』 7호(1998 하반기), pp.227-263 및 비로자나불상 연구에 대한 참고문헌.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신라적인 변용은 당시의 불교사적인 흐름과 관련 있으며 이는 통일 신라 불교조각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II. 지권인 불좌상의 연원과 존명문제

지권인 불좌상은 결가부좌의 자세로 두 손을 가슴 앞에 올리고 둘째손가락만 똑바로 세운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서 그 오른손 엄지가 왼손 둘째손가락 끝에 서로 맞닿게 한 수인을 하고 있는 불상형식이다. 이러한 지권인 불상으로 이른 시기의 예는 찾아볼 수 없지만 지권인의 수인과 존명에 관한 기록은 唐代 밀교승인 金剛智가 8세기 전반에 번역한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이나 般若 역의 『攝眞實經』과 같은 『金剛頂經』 계통의 밀교경전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 권3에는 “왼손의 둘째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응당 잡아야 한다. 이것을 菩提最上契라 이름한다. 능히 佛菩提를 수여한다. 이 大印을 결하고 나서 마땅히 毘盧遮那尊者를 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⁴ 『佛說境界攝眞實經』에 의하면, “좌우의 엄지손가락을 각 손바닥 안에 넣은 다음 네 손가락을 굽혀 주먹을 쥐는데 이것이 堅字金剛拳印이다. 다음으로 왼손 등을 밖으로 향하게 한 후 검지손가락을 곧게 세운다. 다시 오른쪽 끝 손가락으로 왼손 검지손가락의 첫째마디를 잡는다.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중지손가락의 첫째마디에 올려놓고 가슴 앞에 모은다. 이것을 菩提引導第一智印이라고 하며 能滅無明黑闇印이라고도 부르며 곧 비로자나여래의 大妙智印이다”고 한다.⁵ 또 不空이 번역한 『金剛頂經一字頂輪王瑜伽一切時處念誦成佛儀軌』에는 “지권인이란 중지와 무명지, 약지로 엄지를 잡고 검지로 엄지 뒤를 떠받쳐 금강권을 이루어 오른손으로 왼쪽 검지 한 마디를 쥐고 면을 가슴에 대는 것이다”고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⁶ 이러한 경전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권인은 비로자나불이 결하는 수인으로 각승인 또는 최상보리인이라고도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지권인상의 형상 및 존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金剛智가 번역한 『金剛峯樓閣一切瑜伽祇經』 권하에 “대일여래는 如來形과 같고 智拳印을 결하고 있다”는

⁴ 『大日經·金剛頂經』外 한글대장경 133(동국역경원, 1994), pp.450-451.

⁵ 『大正新修大藏經』 제18권 密教部 1, p.275c.

⁶ 『一字佛頂輪王經』外 한글대장경 197(동국역경원, 1995), pp.261-262.

내용이다.⁷ 일반적으로 금강계 대일여래는 금강계 만다라의 주존으로 머리에 보관을 쓰고 몸에 장신구를 걸친 보살형의 지권인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위 경전상의 내용으로 볼 때 여래형의 지권인상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지권인은 『금강정경』 계통의 밀교경전이 번역되는 8세기 전반에 비로자나불 또는 대일여래의 수인으로 수용되면서 여래형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로자나불이 성립된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光明神 또는 太陽神의 성격이 강하여 오래 전부터 인도 고대 신화에 나오는 대표적인 神인 이수라(Asura)에서 비롯된 것으로 언급되어 왔다.⁸ 이수라는 고대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신인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와 同體로 원래 빛의 신이었던 것이 악마로 바뀌고 다시 빛나고 눈부시게 비친다는 뜻을 가진 비로자나불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와는 달리 비로자나불을 太陽神과 같은 존격이며 비슈누(Visnu)神의 명칭 중에 '비로자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슈누神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설도 있다.⁹ 따라서 비로자나불의 개념은 태양이 지닌 특성에 비유하여 온 세계의 모든 것을 두루 비추어 어둠을 없애주고 그 광명은 항상 빛나고 생멸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비로자나불의 지혜의 빛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밝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로자나불은 여러 경전에 主佛로서 각각 등장하고 있지만 그 의미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비로자나불의 명칭은 5세기에 한역된 『잡아함경』 권22에¹⁰ 태양을 의미하는 신으로 처음 등장한 이래 『60화엄경』에서는 현재불인 盧舍那佛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다가 『범망경』, 『법화경』, 『80화엄경』에 이르러 法身佛로서의 비로자나불이 나오게 되었다.¹¹ 『범망경』과 『법화경』에서는 통일적인 佛의 관념에는 이르렀지만 보편적, 무제한적인 十方遍滿佛의 개념을 가진 비로자나불은 아직까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화엄경』에 이르러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佛陀觀에 따라 法身思想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됨으로써 다양한 佛身論이 전개되었다.¹²

7 『大正新修大藏經』 제18권 密教部 1, p.264b.

8 渡辺照宏, 「VirocanaとVaircana」, 『密教學密教史論文集』(京都: 高野山大學, 1965), pp.371-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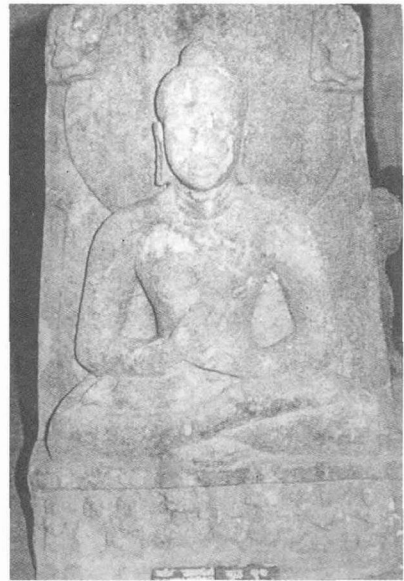
9 宮坂有勝, 「アスラからビルシセナ佛へ」, 『密教文化』 47號(高野山大學密教研究會, 1959), pp.14-15; 松長有慶, 『密教の相承者』(東京: 平論社, 1977), p.68.

10 『大正新修大藏經』 제2권 阿含部 下, p.155a.

11 金苧石, 『華嚴學概論』(東國大學校出版部, 1960), pp.102-106.

12 權坦俊, 「華嚴經에서의 如來에 대하여(1)」, 『韓國佛教學』 16집(韓國佛教學會, 1991), pp.470-471.

밀교경전에서는 8세기 초에 번역된 『不空羂索神變眞言經』의 후반부에 처음으로 비로자나불이 五佛의 중심불로서 나타나며 『大日經』, 『大日經疏』, 『金剛頂經義訣』에서는 비로자나불의 성격을 더욱 확대시켜 摩訶毘盧遮那佛(Mahāvairocana) 즉 大日如來로 번역되었다. 『大日經疏』 권1에 의하면 비로자나란 除闇遍明, 能成衆務, 光無生滅이라는 의미에서 세상에 있는 보통의 해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큰(Mahā=大)'이란 뜻을 더하여 大日로 번역했다고 한다.¹³ 따라서 盧舍那佛, 毘盧舍那佛, 大日如來는 이름만 다를 뿐, 모두 태양이란 뜻으로 光明 그 자체를 상징하는 근본적인 佛性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도 1 금강계 대일여래상, 8세기, 인도 오리사주 랄리타기리 발견, 오리사주 랄리타기리 收藏庫

1. 단독 및 삼존불 형식의 인도 지권인상

지권인 불좌상에 속하는 이른 시기의 인도의 예로는 최근 동부 오리사(orissa)주의 랄리타기리(Lalitagiri)에서 발견된 8세기로 추정하는 2구의 석조 지권인 불좌상이 있다¹⁴. 이 불상들은 머리에 나발이 표현된 여래형의 불상으로 몸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오른손 안에 왼쪽 손바닥을 넣은 것 같은 손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인의 형태는 명확한 의미로서의 지권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간다라 불상의 전범륜인(설법인)과 유사하여 지권인의 기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이 불좌상은 현존하는 인도의 불상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식을 보여주는 여래형의 지권인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비로자나불상의 연원문제와도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살형의 지권인상의 예는 인도 서부 엘로라석굴 제12굴 2층 북면의 小龕 中段에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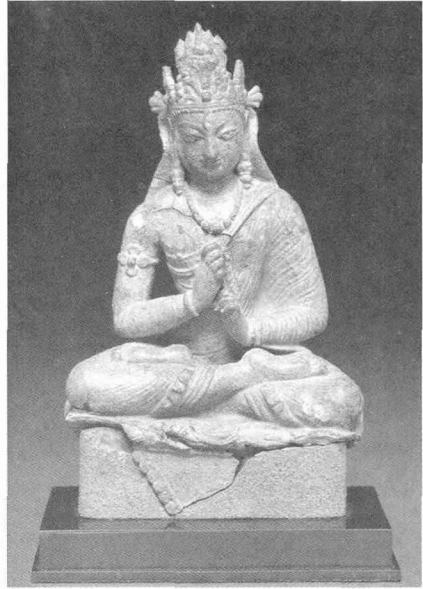
¹³ 『大正新修大藏經』 제39권 經疏部 7, p.579a.

¹⁴ 宮治 昭, 「インドの大日如來像の現存作例について」, 『密教圖像』 14號(1995), pp.16-17.

¹⁵ 佐和隆研, 「大日如來像の展開」, 『佛教藝術』 73號(1969), pp. 8-9. 반면에 이러한 지권인의 형태가 밀교와 대승 불교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석존의 요소를 상징하는 수인인 轉法輪印으로 변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賴富本宏, 「智拳印について」, 『密教學研究』 27號(1995. 3), pp.57-59.



도 2 금강계 대일여래삼존상, 8세기,
인도 엘로라석굴 제12굴



도 3 금강계 대일여래상, 9세기, 높이 16cm,
파키스탄 스왓트 출토, 일본 神奈川
실크로드연구소

된 8세기로 추정되는 삼존불상의 중존에서 볼 수 있으나 마멸이 심한 편이어서 불상의 형상이나 수인 등이 뚜렷하지 않다². 이와 비슷한 시기로 추정되는 또다른 예로 북부 카슈미르에서 발견된 보살형의 지권인상이 현재 일본 西新井大師 摠持寺에 소장되어 있다.¹⁶ 이 지권인상은 7마리의 사자가 배치된 대좌 위에 앉아 있고 허리가 잘록하여 비교적 어깨와 가슴에 양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8세기 이전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부의 스왓트 지역에서도 興願印의 寶生如來와 함께 지권인의 불좌상이 발견되었는데 머리에 三山冠 형태의 보관을 쓰고 있는 보살형의 모습이다³. 이 불상은 역삼각형의 얼굴 형태나 목걸이, 花形의 臂釧 장식, 편단우견의 법의 등에서 카슈미르 계통의 불상양식과 유사하므로 9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9세기에 해당하는 보살형의 지권인상들은 동부 오릿사씨의 우다야기리 제1사원 前庭의 지권인상을 비롯하여 라트나기리 제4사당에 금강살수와 성관음을 협시보살로 한 지권인상과 제1승원 內庭의 팔대보살을 주위에 표현한 지권인

¹⁶ 『中國古代金銅佛と中央・東南アジアの金銅佛』(和泉市久保惣記念美術館, 1988), 圖76 참조.

¹⁷ 『世界美術大全集』인도(2)(小學館, 1999), 圖25, 28, 30 등.

상 등 다수의 예들이 남아 있다.¹⁷ 이러한 여래형 및 보살형 지권인 불좌상은 『金剛頂經』 계통의 밀교경전과 관련 있는 금강계 대일여래상으로 보고 있다.¹⁸

같은 지역인 탈리타기리에서 발견된 태장계 대일여래상 역시 머리 위에 커다란鬚髻가 높이 솟아 있고 몸에는 팔찌나 목걸이 등의 장신구가 없는 여래형의 모습이나 광배의 위쪽에 새겨진 眞言(namaḥ samānda buddhānām ah vira hum kham)의 서체로 보아 대체로 7세기 후반에서 8세기로 추정한다.¹⁹ 이러한 定印의 태장계 대일여래상이 『大日經』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佐和隆研씨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²⁰ 인도 서부의 엘로라 제12굴에서도 태장계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주위에 팔대보살이 배치된 八大菩薩曼荼羅를 볼 수 있으며 미국 넬슨갤러리에 소장된 목조불감에도 나타나 있는데 조성연대는 대체로 8세기에서 9세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인도에서는 태장계 및 금강계의 대일여래상이 8세기경에는 성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삼존불 및 오방불 형식의 중국 지권인상

중국의 경우,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단독의 지권인 불상은 아직 발견된 바가 없고 9세기 이후에 삼존불 또는 오방불의 하나로 표현된 예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헌상으로는 8세기 중엽에 비로자나불상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즉, 838년 6월 13일에서 847년 12월 14일까지 9년 6개월간 중국을 여행한 기록을 적은 일본승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의하면, 不空이 766년에 창건한 중국 五臺山 金閣寺의 金閣 2, 3층에는 金剛頂瑜伽五佛과 頂輪王瑜伽會五佛이 각각 안치되어 있었는데 부처와 보살의 수인과 얼굴모습이 서로 달랐다고 한다. 이 내용을 근거로 2층의 五佛은 『金剛頂經』의 毘盧遮那, 阿閼, 寶生, 無量壽, 不空成就佛을 표현한 것으로 중앙의 비로자나불상이 螺髮形, 즉 如來形이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²¹

五臺山 金閣寺 2층에 안치되었던 금강계 만다라의 중존이 여래형의 지권인상이었다고 한다면, 이 金閣寺에 의거하여 不空三藏이 건립한 五臺山의 玉華寺에도²² 여래형의 비로자

¹⁸ 宮治 昭, 앞의 논문, pp.1-30.

¹⁹ 賴富本宏·下泉全曉, 『密教佛像圖典—インドと日本のほとけたち—』(人文書院, 1994), p.24.

²⁰ 佐和隆研, 「インドラトナギリの佛教遺蹟」, 『佛教藝術』 67號(1968, 4) p.107.

²¹ 小野勝年,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第三卷(法藏館, 1991), p.107.

²² 『大正新修大藏經』 제52권 史傳部 4, p.834b.



도 4 碑像, 唐代, 中國 陝西省 西安
碑林博物館

나불상이 안치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지며 나아가 8세기 중엽의 또 다른 여래형 지권인상이 존재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권인의 비로자나불상은 不空三藏이 756년부터 長安의 大興善寺에 머물면서 밀교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였고 766년에는 五臺山 金閣寺를 창건하여 밀교의 본거지로 삼아 五臺山 불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²³ 당시 長安과 五臺山 일대에서 상당히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존하는 예로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속하는 여래형의 지권인상은 西安 碑林博物館의 회랑에 진열되어 있는 唐代 碑像의 중앙부분에서 볼 수 있다^{도 4}. 지권인상을 중심으로 칼과 연봉우리를 각각 쥐고 있는 금강수와 연화수보살이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 삼존불상이다. 지권인 불좌상은 머리에 육계가 표현된

여래형의 모습으로 굽은 띠주름으로 처리된 법의의 옷주름 표현에서 형식화되어 있다. 좌우의 협시보살상도 관대 위로 뻗어나온 자락이 좌우로 휘날리고 있는 점이나 양쪽 어깨에 걸친 천의가 길게 내려온 점 등에서 8세기 長安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백대리석 보살좌상의 특징과 유사하나 이미 형식화가 진행된 상태이다. 이 비상의 조성시기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불상의 자세, 조각기법, 대좌의 형식 등에서 9세기 중엽의 晚唐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晚唐시기에 해당하는 또 다른 여래형의 지권인상이 雲南省 大理縣의 서북쪽에 위치한 崇聖寺 千尋塔의 塔頂에서 발견되었다. 천심탑은 16층의 전형적인 唐代 전탑형식으로 『南詔野史』의 豐祐傳에 의하면, 唐 開成年間(836-840)에 건립되었다고 한다.²⁴ 1978년에 이 탑을 수리, 해체했을 때 塔頂과 塔基에서 胎藏界 曼荼羅, 法輪, 金剛杵, 金剛鈴 등 총 680여 점의 유물이 나왔는데 그중 불상은 154구로 여래형 지권인상을^{도 5} 중심으로 동방 이축불, 남방

²³ 朴魯俊, 「唐代 五臺山 信仰과 不空三藏」, 『嶺東文化』 3집(1988), pp.25-36.

²⁴ 關勇·邱宜充, 「南詔·大理時代の文物」, 『雲南省博物館』 中國の博物館 第二期 第二卷(講談社, 1988), pp.193-195; 姜懷英·邱宜充 編著, 『大理崇聖寺三塔』(文物出版社, 1998), pp.25-28.



도 5 여래형 지권인상, 836-840년,
높이 8-8.5cm, 중국 雲南省 大理縣
崇聖寺 千尋塔 발견



도 6 금동사리함의 보살형 지권인상,
871년, 法門寺 8각 13층 塔塔 後室
秘龕 발견, 중국 陝西省 扶風縣

보생불, 서방 무량수불, 북방 불공성취불로 구성된 금강계 5불이 대부분이다. 이 오방불상은 크기가 8-8.5cm 정도의 작은 불상으로 신체에 비해 머리부분이 큰 편이며 머리 위에는 낮은 육계가 얹혀 있고 그 사이로 계주가 장식되어 있는 여래형의 모습이다. 약간 살찌고 둥근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크고 뚜렷하게 표현되었으며 통견식으로 걸친 법의는 몸에 밀착되면서 결가부좌한 두 다리 밑으로 흘러내려와 있어 9세기 전반의 불상양식을 보여준다.

중국의 불상 중에서 연대가 확실한 보살형 및 보관여래형의 지권인상은 陝西省 扶風縣城北에 위치한 법문사의 8각 13층 전탑의 지궁 후실 및 후실 비감에서 발견된 871년명의 금동사리함에서 볼 수 있다.²⁵ 현재 5겹의 함으로 중첩된 금동사리함 중 두 번째 함인 鑿金四十五尊造像盃頂銀函의 뚜껑에는 보살형의 지권인상을 도 6 중심으로 金剛, 羯磨, 法, 寶의 4바라밀보살과 金剛歌, 金剛舞, 金剛嬉, 金剛鬘의 4보살이 배치되어 있고 그 주위로는 12개의 金剛杵와 16존의 보살 및 明王(혹은 諸神), 吉祥瓶이 둘러싸고 있다. 금동사리함의 4면에는 동방 阿閼佛, 남방 寶生佛, 서방 阿彌陀佛, 북방 不空成就佛의 4불이 부조되었고 각 상의 좌

²⁵ 陝西省法門寺考古隊, 「扶風法門寺塔唐代地宮發掘簡報」, 『文物』(1988年 第10期), pp.1-28.



도7 금강계 대일여래,
『大正新修大藏經圖像』 권3



도8 금동사리함의 보관여래형 지권인상, 871년, 法門寺 8각 13층
塔塔 後室 발견, 中國 陝西省 扶風縣

우에는 4구의 金剛菩薩이 표현되어 있다.²⁶ 이 법문사 금동사리함의 5불은 일본 平安時代의 도상집인 『圖像抄』와 도7 비교해 보면, 밀교의 금강계 5불에 해당하며 보살형의 지권인상은 금강계 대일여래의 도상과 일치한다.

후실 북벽의 정중앙에서 발견된 鍍金四天王蓋頂銀寶函의 4번째와 5번째의 함에도 각각 보관여래형의 지권인상이 표현되어 있다. 즉, 4번째 함인 六臂如意輪觀音等曼荼羅純金寶函에는 동방 藥師如來, 남방 六臂如意輪觀音菩薩, 서방 釋迦如來, 북방 毘盧舍那佛이 도8 배치되었고 5번째 함의 鍍金如來坐佛說法蓋頂銀寶函은 동방 文殊菩薩, 남방 釋迦如來, 서방 普賢菩薩, 북방 毘盧舍那佛 등이 배열되어 있다. 이 금동사리함에 표현된 사방불은 금강계 5불의 구성과 다를 뿐 아니라 석가불과 비로자나불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일본 京都 高雄山 神護寺에는 밀교승인 空海가 長安 靑龍寺에서 스승 惠果로부터 받은 만다라를 805년 일본으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것을 829년에서 832년에 걸쳐 모사했다고 하는 唐代의 兩界曼荼羅가 전해지고 있다. 이 양계만다라는 '高雄曼荼羅'라고도

²⁶ 韓傳, 「法門寺唐代金剛界大曼荼羅成身會造像寶函考釋」, 『文物』(1992年 第8期), pp.41-54; 韓金科·王倉西, 「法門寺地宮文物反映的密教內容淺析」, 『人文雜誌—國際法門寺佛教學術討論會論文集—』(人文雜誌社, 1993 增刊), pp.118-124; 吳立民·韓金科, 『法門寺地宮唐密曼荼羅之研究』(香港: 中國佛教文化出版有限公司, 1998).



도 9 금강계 만다라의 대일여래, 9세기 초,
일본 京都 神護寺



도 10 바미안석굴 제43굴 벽화, 4-7세기,
아프카니스탄 카불국립박물관

부르는 현존하는 最古의 예로서 赤紫의 비단에 금은니로 그려져 있는데 특히 금강계 만다라의 본존으로 보살형의 지권인상이 표현되어 있다⁹. 空海가 중국에서 청래한 물품이 적혀 있는 『請來目錄』에는 大毘盧遮那大悲胎藏大曼荼羅, 金剛界九會曼荼羅, 胎藏法曼荼羅, 胎藏三昧耶略曼荼羅, 金剛界八十一尊大曼荼羅 등이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²⁷ 중국에서는 9세기 초 이전에 이미 금강계 및 태장계의 양계만다라가 長安을 중심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상들은 거의 없지만 唐代 長安지역의 밀교상황에 대해서는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838년 12월 23일조에 “최근에 이르러 三論 유학승인 常曉가 棲靈寺에 머물면서 文琛法師의 방에서 眞言을 배우고 兩部の 曼荼羅를 그렸다”는 내용과 839년 閏 정월 21일조에 崇山院의 持念 화상인 全雅로부터 금강계의 여러 尊位의 儀軌에 관한 책 수십 권을 빌려 필사했으며 이 全雅화상은 태장계와 금강계의 曼荼羅를 가지고 있고 아울러 壇을 짓는 법도 알고 있었다는 점, 또 같은 해 4월 5일조에는 唐나라에서 얻은 경전 한 상자와 曼荼羅, 壇樣 2부를 큰 가죽상자에 담아 여덟 번째 배의 우

²⁷ 濱田隆, 「兩界曼荼羅」, 『密教美術大觀』 제1권 兩界曼荼羅(朝日新聞社, 1983), p.222.

두머리인 도모노 스쿠네에게 보냈으며 아울러 소지품도 함께 보냈다는 점 등 여러 내용들이 전해진다.²⁸ 이러한 기록들은 9세기 중엽의 唐代에 長安에서 중기밀교가 성행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금강계 만다라의 본존인 지권인상도 많이 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 唐代의 금강계 5불 형식은 山西省 일대의 應縣 佛宮寺 木塔 5층에 안치된 금강계 5불을 비롯하여²⁹ 大同市 上華嚴寺와 善化寺의 금강계 5불,³⁰ 그리고 河北省 일대 등에서 遼, 金, 明, 清代에 이르기까지 조성되었으며 중존의 지권인상은 대부분 여래형으로 표현되었다.

이외 4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개굴된 아프카니스탄의 바미얀 석굴 제4굴 및 43굴과도 10 서역의 키질석굴 제189굴의 벽화 등에서도 원형으로 구성된 존상배치 등이 나타나고 있다.³¹ 인도네시아에서도 790년경에 건립되기 시작하여 9세기 중엽경에 완성되었다고 하는 보로부 드르사원의 방형기단 5층에 배치된 금강계 5불을 볼 수 있다.³²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늦어도 8세기경에는 지권인 비로자나불을 중존으로 하는 금강계 5불의 개념이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통일신라시대 지권인 불상의 도상과 신라적 변용

지권인 불좌상은 인도와 중국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늦어도 8세기 중엽의 통일 신라기에는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와 관련된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신라 7세기 중엽에 明朗, 惠通에 의해 초기밀교가 전해진 후 8세기 중엽경에는 義林, 不可思議, 惠日 등의 밀교승을 통하여 중기밀교가 전래되면서 이와 관련된 밀교경전과 함께 그 도상이 전해졌을 것으로 본다.³³

현존하는 지권인 불상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예이자 조상명에 '비로자나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상으로는 경상남도 산청군 내원사에 있는 766년명의 석남사 불상이 유일하게

²⁸ 圓仁 著, 申福龍 譯, 『入唐求法巡禮行記』(정신세계사, 1991), p.58, 68, 83, 224, 229, 234, 235 등에 밀교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²⁹ 『應縣木塔』(文物出版社, 2001, 9), 圖131 참조.

³⁰ 『山西佛教彩塑』(中國佛教協會 香港寶蓮禪寺, 1991), 圖9, 14, 59, 61, 63, 64 참조.

³¹ 口隆康 編 『「バーミヤーン」アフガニスタンにおける佛教寺院の美術考古學的調査 I-IV 권』(同朋舎, 1983), 圖131, 140, 141 등; 韓 翺·朱英榮 共著, 『龜茲石窟』(新疆大學出版社(1990, 10), 圖90 참조.

³² 松長惠史, 『インドネシアの密教』(法藏館, 1999), pp.128-157.

³³ 高翊晉, 「新羅密教의 思想內容과 展開樣相」, 『韓國密教思想研究』(東國大學校出版部, 1986), pp.127-221.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헌상으로는 『삼국유사』 권3의 臺山五萬眞身條에 나오는 기록 중에 705년에 창건된 眞如院 후벽에 비로자나불을 수반으로 한 36化形이 그려져 있으며 華藏寺에는 비로자나삼존상이 봉안되어 있었다는 내용에서 비로자나불의 명칭이 이미 나오고 있다. 또 시대는 내려가지만 847년경에 세워진 『崇巖山聖住寺事蹟』에도 성주사 비로자나불상에 관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³⁴ 통일신라 전반에는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이 성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859년의 절대연대를 가진 보림사 지권인상의 경우는 普照禪師彰聖塔碑의 비문 내용 중에 '盧舍那佛'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록상으로 노사나불이라는 명칭은 최치원의 四山碑인 860년경에 기록한 崇福寺碑銘에 “중층의 佛殿에는 용으로 된 대좌 위에 盧舍那佛을 주존으로 모셨다”고 되어 있으나³⁵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노사나불은 현재 정확한 도상을 알 수 없지만, 중국 龍門石窟 奉先寺洞에 있는 675년의 노사나불상이나 일본 東大寺 및 唐招提寺에 안치된 8세기의 노사나불상들을 통해서 볼 때 대체로 여래형에 시무외·여원인의 통인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문에 의해 노사나불로 밝혀진 강원도 東海市 三和寺에 있는 통일신라 후기의 철불좌상에서 볼 수 있듯이, 여원인과 시무외인을 하고 있거나 고려 후기의 불화처럼 두 손을 모두 양쪽 어깨 위로 올려 손바닥을 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에는 별다른 구별없이 法身佛의 비로자나불과 報身佛의 노사나불이 혼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예는 전라남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에 위치한 고려시대의 鄭嶺峙 마애불상군 중 명문에 의해 비로자나불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권인을 하고 있지 않고 오른손은 왼쪽 가슴 위에 두고 왼손은 배 부분에 수평으로 하고 있는 불좌상에서도 볼 수 있다.³⁶ 정령치의 비로자나불상은 바위 면의 탈락이 심하여 세부표현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지권인의 수인만으로 비로자나불이라고 추정해 왔던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 지권인을 하지 않은 비로자나불의 예로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이 비로자나불상은 반드시 지권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범신불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축지인, 설법인 등 어떤 수인을 하더라도 비로자나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은 머리의 형태에 따라 보관을 쓰고 있는 보살형과 나발이

³⁴ 「崇巖山聖住寺事蹟」, 『佛教美術』 2호(東國大學校博物館, 1974), pp.33-34.

³⁵ 崔英成 註解, 『四山碑銘』(亞細亞文化社, 1987), p.139.

³⁶ 黃鎬均, 「智異山 鄭嶺峙 磨崖佛像群의 性格과 造成背景」, 『불교문화연구』 4집(1994), pp.70-71.

표현된 여래형, 여래형이면서 보관을 쓴 보관여래형 등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 두 손은 모두 지권인을 하고 있다. 그중 여래형 비로자나불상은 그 예가 많이 남아 있어 지권인 형태에 따른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할 뿐 아니라 불상표현에 의한 시대적인 양식의 변화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표1, 2}. 그러나 9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예인 보림사와 도피안사 비로자나불상은 현재 두 손이 결실되어 후보된 것으로 원래 지권인의 형태를 알 수 없으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여래형 지권인상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보살형 지권인 불상

보살형의 지권인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불상형식으로 2예만 남아 있어 지권인의 형태에 의한 형식 분류를 할 수 없다. 보살형 지권인 불상으로 알려져 있는 최초의 예는 754~755년에 제작된 호암미술관 소장의 <신라화엄경변상도>의 중존이 있으나 현재 단편으로 남아 있어 전체적인 모습은 알아볼 수 없다^{도11}. 이 변상도는 『대방광불화엄경』 권1-10까지의 내용이 수록된 경축을 감싸고 있던 표지 안에 금은니로 그려진 것으로 그 바깥 표지 쪽에 있는 <금강역사도>와 함께 경전의 앞부분에 해당된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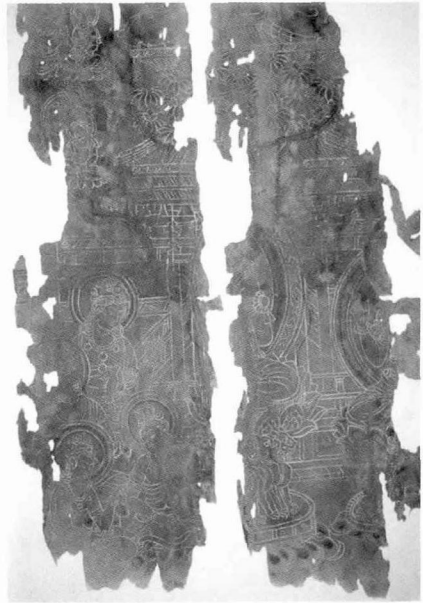
이 사경의 조상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권10과 권50 끝부분에 있는 跋文에 의해 『대방광불화엄경』은 황룡사의 緣起法師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극락왕생과 모든 중생의 성불을 염원하기 위하여 발원한 것으로 754년 8월 1일에 사경하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14일인 부처님 涅槃日에 완성되었음이 밝혀졌다.³⁸ 또 조상기 내용 중에는 불·보살상을 그린 畫師로 경주지역 출신의 義本, 丁得, 光得, 豆鳥 등 장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經筆師와 紙作人 등의 관계인은 武珍州와 完山州로 대부분 전라도 지역으로 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민이 함께 제작하였음을 말해준다.³⁹ 이와 같이 신라 왕실이나 진골귀족층이 아닌 승려

³⁷ <新羅華嚴經變相圖>의 원래의 위치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민영규 선생은 普賢菩薩이 獅子座에 앉아 있는 장면은 제1회 普賢三昧品과 제9회 入法界品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변상도를 경권의 맨 첫번째 축 또는 여덟번째 축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황수영 선생은 변상도가 각 축의 卷頭에 모두 장식되어 있으나 이 변상도가 발견된 경문 2축 중에 반드시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최완수 선생 역시 이 변상도를 서로 다른 경전에서 분리된 그림이라며 한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문명대 선생은 변상도를 권 43-50에 해당되는 표지그림으로 제7회 普光明殿會를 그린 것으로 추정하였다. 黃壽永, 「新羅 白紙墨書 華嚴經」, 『美術資料』 24호(1979. 6), p.7; 崔完秀, 「토론속기록」, 『歷史學報』 83호(1979), p.15; 文明大, 「新羅華嚴經 寫經과 그 變相圖의 研究—寫經變相圖의 研究(1)—」, 『韓國學報』 14집(1979), pp.27-64.

³⁸ 『新羅白紙墨書 大方廣佛華嚴經』(문화재청, 2000. 12), pp.23-30.

와 四頭品, 五頭品の 지방민이 참여하여 완성하였다는 사실은 8세기 중엽 이후 화엄신앙이 지방사회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당시 불교계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신라화엄경변상도>의 본존불은 왼쪽 팔에 장식된臂釧과 대좌 부분에 4두의 사자가 확인되는獅子座라는 점에서 보살형의 비로자나불상으로 추정해 왔다. 비로자나불이獅子座 위에 앉아 있는 경전상의 근거로는善無畏가 번역한『尊勝佛頂修瑜伽法儀軌』 권상을 비롯하여金剛智역의『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 권1, 『金剛頂瑜伽修習毘盧遮那三摩地法』과 不空역의『金剛頂經一字頂輪王瑜伽一切時處念誦成佛儀軌』 권5 등 중기밀교 계통의 경전에서 볼 수 있다. 특히『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에는 중앙의 비로자나불상은獅子座, 동면 아축불은象座, 남면 보생불은馬座, 서면 아미타불은孔雀座, 북면 不空成就佛은 가루라座로 규정하여 금강계 5불과 대좌에



도 11 <新羅華嚴經變相圖>, 754-755년, 경기도 湖巖美術館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⁴⁰ 이러한 경전의 내용에 의하면, 비로자나불상의獅子座는 금강계법에 영향을 받은 중기밀교의 금강계 대일여래에서 유래된 도상으로 볼 수 있다.⁴¹ 그러나 중국 당대 밀교승인善無畏와 관련 있는『五部心觀』의 도상집을도¹² 참고로 한다면,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는 보관여래형의 지권인상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보관불 형태의 지권인상이獅子座 위에 앉아 있는 예는 중국唐代法門寺 8각 13층 塔塔의地宮 後室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함의 북면을 비롯하여 遼代 中京 興中府 朝陽의 북탑, 明代의『大方廣佛華嚴經』 등의 비로자나불상에서 볼 수 있으며 일본平安時代の 비로자나불상에도 흔히 나타나는 불상형식이다.⁴² 따라서 <신라화엄경변상도>는 제작연대가 확실한 8세기 중엽의 불화

³⁹ 李基白, 「新羅 景德王代 華嚴經 寫經 關與者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83집(1979. 9), pp.129-133.

⁴⁰ 『大日經·金剛頂經』外 한글대장경 133, p.386.

⁴¹ 獅子座와 비로자나불의 도상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할 만하다. 朴亨國, 「七獅子蓮華座의 圖像について—韓國統一新羅後期の石造毘盧遮那佛坐像を中心に—」, 『密教圖像』 14號(1995), pp.34-60.

⁴² 『密教美術大觀』 제2권 如來·觀音(朝日新聞社, 1984), 圖23, 24, 25, 29 등 참조.



도 12 금강계 대일여래, 『五部心觀』



도 13 보살형 금동지권인상,
8세기 후반, 높이 10cm,
舊 關野貞 소장



도 14 금동보살좌상, 통일신라
전반, 높이 14.5cm,
경북 영주시 순흥리
숙수사지 발견,
국립중앙박물관

로서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예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보살형 또는 보관여래형의 비로자나불상이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보살형의 지권인상으로는 『朝鮮古蹟圖譜』 권5에 실려 있는 舊 關野貞 소장의 불상을 들 수 있으나 현재 그 소재지는 알 수 없다⁴³. 이 불상은 높이 10cm 정도의 작은 상으로 머리 위에는 보관을 쓰고 목걸이와臂釧, 팔찌 장식과 함께 편단우건의 법의를 입고 있으며 두 손은 가슴 앞에서 지권인을 하고 있다. 지권인의 형태는 두 손을 비스듬히 쥐고 있는 것으로 III형식에 해당된다. 얼굴은 넓은 편이나 코와 입술의 선이 비교적 예리하면서 뚜렷하고 복련의 상대만 남아 있는 대좌에서도 연판 끝부분이 외반되어 있는 등 장식적 요소가 보인다. 특히 불상의 얼굴표현이나 대좌의 연판 형태 등은 경상북도 영주군 순흥리 내 죽리 숙수사지에서 발견된 25점의 불상 중 통일신라 전반으로 추정하는 금동보살좌상과⁴⁴ 양식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이 지권인상은 어깨나 결가부좌한 두 다리의 표현에서 양감

⁴³ 『朝鮮古蹟圖譜』 5권(朝鮮總督府, 1928), p.614 圖2011 참조.

⁴⁴ 金載元, 「宿水寺址 出土 佛像에 對하여」, 『震檀學報』 19호(1958, 5), p.21.

이 다소 적은 편으로 8세기 중엽의 전성기 불상양식보다는 시대가 조금 내려가는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여래형 지권인 불상

1) I형식의 지권인상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 표현에서 두 손이 가슴 아래로 내려와 있고 오른손으로 왼손의 둘째손가락 끝부분만 쥐고 곧바로 세운 것으로 두 손 사이의 간격이 많이 벌어진 형태를 I형식이라 한다. I형식에 속하는 대표적인 지권인상으로 경상남도 산청군 내원사 비로전에 안치된 석남사 석조비로자나불상은 도15 현재 광배와 대좌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마멸이 심한 편이지만 둥글고 원만한 얼굴이나 건장하고 당당한 佛身의 탄력감 있는



도 15 석남사 석조비로자나불상.
766년, 높이 108cm,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사

모습 등에서 석굴암 본존불을 비롯한 8세기 중엽의 불상에 나타나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불상은 대좌 중대석의 圓形孔에서 발견된 766년명의 사리호에 의해 8세기 중엽에 지권인상이 처음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현존 最古의 비로자나불상임을 밝혀주는 중요한 예이다.⁴⁵ 또한 불상의 명문 내용을 통해서 통일신라 혜공왕 2년인 766년에 豆溫哀郎이 발원하여 法勝과 法緣 두 승려가 조성한 것으로 그 지역의 檀越들의 영훈과 발원한 승려들 및 모든 중생이 三惡道業을 없애고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성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불상의 원소재지가 지리산 산정에 위치한 石南寺 觀音巖에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불상의 명문 중 처음으로 '毘盧遮那佛'이라는 존명이 명시되어 있고 불상의 복장물로서 『無垢淨光陀羅尼經』이 사용된 최초의 불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석남사 비로자나불상은 신라 왕실에서 발원하여 조성한 것이 아니라 몇몇 승려와 그 지역의 檀越들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8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나는 불교계의 새로운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불국사 비로전에 안치된 금동비로자나불상은 도16 기본적으로 I형식에 속하는 것이나

⁴⁵ 朴敬源·丁元郷, 「永泰2年銘 蠟石製壺」, 『釜山直轄市立博物館年報』 6호(1983), pp.45-62; 朴敬源,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佛坐像」, 『考古美術』 168호(1985), pp.1-21.



도 16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상.
8세기 후반-9세기 초, 높이 177cm,
경북 경주시 진현동

은 9세기 불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불신의 표현에서 허리가 길면서 배가 약간 나와 있는 長身化의 경향은 중국 中唐(760-850) 때 나타나기 시작하여 9세기 말에 크게 유행했던 새로운 요소이다. 따라서 불국사 비로자나불상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존하는 最古의 좌권인상으로 인도나 중국에 전하는 예들보다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불국사상과 같은 좌권인의 수인은 중국 서안 비림박물관의 회랑에 전시중인 9세기의 唐代 碑像에 조각된 여래형의 지권인상과도⁴ 북송대의 여래형 지권인상 등에서 간혹 볼 수 있다. 12세기 후반의 일본 平安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여러 도상을 모아서 만든 불교도

우견편단의 법의를 입고 지권인을 한 두 손이 가슴 위로 올라와 있으며 손의 좌우가 바뀌 있는 좌권인상이다. 유난히 넓은 결가부좌한 다리에 비해 얼굴이 작고 상체가 긴 편이며 각이 진 어깨가 넓고 당당하여 전반적으로 불신의 양감이 줄어들었으나 안정감 있는 신체비례를 보여준다.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상의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8세기 중엽, 8세기 후반, 9세기 후반 등 여러 설이 있으나⁴⁶ 8세기 중엽의 석굴암 본존상이나 석남사상과는 양식적으로 같은 시기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9세기 후반에 유행한 비로자나불상과도 비교되는 예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머리 위의 높은 육계와 근엄한 얼굴표정, 법의의 자연스런 옷주름 표현 등에서 통일신라 전성기의 불상 양식을 엿볼 수 있지만 넓고 긴 얼굴에 가늘고 길게 표현된 눈, 직선적인 코의 윤곽선, 두드러진 인중 등

⁴⁶ 佛國寺 금동비로자나불상에 대해서는 김원룡 선생에 의해 처음으로 얼굴에서 형식적 미소가 나타나고 옷주름 표현에서도 도식화의 경향이 뚜렷하다고 하여 8세기 후반경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문명대 선생은 불국사 비로자나불상의 조성을 밀교의 진래와 연관시켜 8세기 중엽으로 추정하였다. 그 뒤 장충식 선생은 8세기 후반경에는 불국사에 화엄의 주존을 봉안할 정도로 화엄신앙이 정비되어 있었다는 견해이며 8세기 후반경에 있었던 불국사의 중창 때 조성되었다고 하는 강우방 선생의 주장도 있다. 金元龍, 「韓國佛像의 樣式變遷」(下), 『思想界』3월(1961), pp.283-284; 文明大, 「8, 9세기의 金剛界 摩訶毘盧舍那佛像」, 『考古美術』 9-6호(1968. 6), p.416; 張忠植, 「韓國佛教美術의 密敎의 要素」, 『韓國密敎思想研究』(東國大學校出版部, 1986), p.506; 姜友邦, 앞의 논문, p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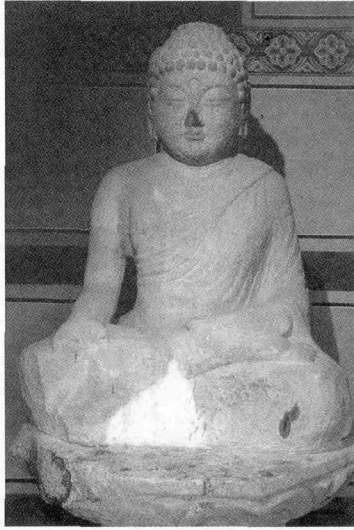
도 17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상,
8세기 후반, 높이 153cm,
경북 예천군 감천면 증거동

상집인 『覺禪抄』에도 奮然이 宋나라에 갔을 때에 좌권인의 대일여래상을 몇 예 봤다는 기록이 있어⁴⁷ 중국에서는 지권인상과 함께 좌권인상도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통일신라 시대의 비로자나불상 중 좌권인의 불상으로는 약 9구가 알려져 있는데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인 사암제 비로자나불상과 강원도 홍천 물결리 석조비로자나불상, 경상남도 진양군 한산사 석조비로자나불상, 전라남도 광주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상 등 9세기에 조성된 통일신라 후기의 예들이다. 이러한 좌권인의 불상은 새로운 불상형식을 수용할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단순한 지권인 좌우의 착오라기보다는 삼존불상 중의 협시보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독상으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국사 지권인상과 관련시킬 만한 좋은 예는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증거동의 한천사 유리광전에 안치된 철조비로자나불상으로 1980년 8월에 보물 제667호로 지정되면서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도 17, 48}. 처음 발견되었을 때에는 두 손이 모두 결실되어 약함을 가진 약사불로 후보되었다가 최근에 지권인 불상으로 복원되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한천사 비로자나불상은 불신에 비해 머리가 작고 결가부좌한 다리의 폭이 넓어 안정감 있는 자세나 양감 있는 어깨와 넓은 두 다리로 인한 균형 잡힌 당당한 신체표현 등에서 통일신라 전성기 불상

⁴⁷ 『大正新修大藏經圖像』 제4권, p.456a.

⁴⁸ 黃壽永, 「統一新羅時代의 鐵佛」, 『考古美術』 154·155호(1982. 6), pp.21-22.



도 18 갈항사 석불좌상, 758년,
높이 122cm,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동

양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둥근 얼굴에 표현된 수평으로 긴 눈과 작고 오뚝한 코와 입, 허리가 잘록한 佛身의 모습은 758년으로 추정되는 경상북도 김천시 금릉군 갈항사에 있는 축지인의 석불좌상과도⁴⁹ 유사하나⁴⁹ 아랫배가 약간 나오고 장신화된 불신이나 우견편단의 법의 등은 8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상과 양식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편단우견으로 걸친 법의가 왼쪽 어깨 위에서 한 번 접힌 채 가슴 아래로 흘러내려와 왼손 위에 걸쳐 내려온 옷자락이나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표현된 여러 겹의 반원형의 옷주름, 두 다리 사이에 모여진 부채꼴 모양의 옷자락 등은 석굴암 본존불의 법의 형식을 기본적으로 따른 것으로 통일신라시대 철불로서는 보기 드물게 자연스럽게 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한천사 비로자나불상은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8세기 중엽의 석굴암 불상이나 갈항사 불상보다는 시대가 내려가는 것으로 8세기 후반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권인의 형태 역시 불국사상과 유사한 I형식이었을 것이다.

2) II형식의 지권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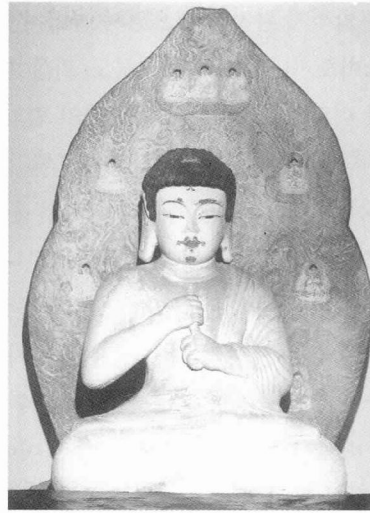
II형식의 지권인상은 I형식과 같은 형식이나 두 손을 가슴 앞에 꼭 붙이고 오른손으로 왼쪽 둘째손가락을 감싸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있는 듯한 형태이다. 이러한 지권인 형태는 9세기 중엽 이후의 비로자나불상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두 손이 가슴 위로 올라와 있고 두 손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어 시대적인 변화가 나타나 있다.

II형식에 속하는 지권인의 불좌상은 통견 또는 우견편단의 법의를 입고 내외와 그 위를 묶은 띠매듭이 모두 표현되었으나 법의의 옷주름 표현에 따라 동화사 비로암 불상과 취서사 불상 계통의 지권인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두 계통의 불상형식은 양식적으로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통일신라 후기 비로자나불상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⁴⁹ 文明大, 「金泉 葛項寺 石佛坐像의 考察」, 『東國史學』 15·16집(1981. 5), pp.53-62.



도 19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
불상, 863년경, 높이 129cm,
대구시 동구 도학동



도 20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상,
9세기 후반, 높이 128cm,
충북 괴산군 칠성면 대성리

불상들과 지권인은 같은 형식이지만 통견의 법의를 입는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권인상 계통의 불상도 함께 살펴보았다.

(1) 동화사 불상 계통의 지권인상

II형식 지권인상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동화사 비로암의 석조 비로자나불상이 도 19 있다. 이 불상은 법당 앞에 있는 삼층석탑의 초층탑신에서 발견된 납석 제 사리호의 명문에 의해 863년 9월에 민애대왕을 위하여 그의 사촌형제인 專知大德 心智가 삼층석탑과 함께 조성하였음이 밝혀졌다.⁵⁰

얼굴은 작고 둥근 편으로 머리의 육계가 낮아지고 불신의 어깨와 두 다리의 폭이 좁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양감이 줄어들고 왜소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통견의 법의는 양 어깨 위에 몇 개의 주름이 접힌 채 가슴 위로 흘러내려 반원형의 주름이 두 다리 위까지 표현되었으며 가슴 위로는 내의와 내의를 묶은 띠매듭이 보인다. 이와 같이 반원형의 옷주름이 결가부

⁵⁰ 黃壽永, 「新羅敏哀大王石塔記」, 『史學志』 3집(1969. 7), pp.53-86.

좌한 다리와 발까지 완전히 덮으면서 늘어서 있는 형식은 통일신라 후기의 경상남도 창원 불곡사의 석조비로자나불상과 충청북도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상에서도^{도20} 발견된다. 특히 각연사 비로자나불상은 우견편단의 범의를 걸치고 있는 점만 다를 뿐 불상의 특징이나 반원형의 옷주름 표현, 주형광배의 화불, 팔각연화대좌의 형식에서 동화사 불상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왼손을 약간 앞쪽으로 돌려서 손가락이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지권인의 형태는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의 금동비로자나불입상과^{도26} 경북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사암제 비로자나불상 등과 같은 통일신라 후기 불상에서 볼 수 있다. 동화사 비로암 불상 계통의 옷주름 표현은 같은 시기의 예천 청룡사 축지인 불좌상이나 밀양 무봉사 축지인 불좌상, 법주사 수정암 축지인 불좌상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유행했던 형식이다.

동화사 비로암 불상의 머리와 육계 사이에 장식된 계주는 흙으로 만들어 나중에 덧붙인 것으로⁵¹ 보림사 불상을 비롯하여 도피안사와 취서사 비로자나불상 등 9세기의 명문이 있는 비로자나불상에는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후보된 것이다. 불상 머리의 계주장식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로 보는 경주 남산 삼릉계의 마애선각육존불상 중 본존불에서 이른 시기의 예를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四川省 廣元 千佛崖石窟 남단 하층에 위치한 제13굴의 북벽대감에 있는 삼존불 중 본존인 축지인 불좌상에 계주장식이 표현되어 있다. 이 불상은 여래형이면서 목걸이와 손목에 팔찌가 장식되어 있는 것으로 굴 안에 있는 武周 萬歲·通天年間(696-697)의 기년명상으로 보아 늦어도 7세기 후반경에는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⁵² 이러한 계주장식은 9세기 이후의 唐代 불상에 크게 유행하는 것으로 854년에 서사된 『胎藏舊圖樣』의 아미타불상을 비롯하여 돈황석굴에서 발견된 868년명의 金剛經變相圖 중 『祇樹給孤獨園圖』와 四川省 郫縣 龍興寺의 石佛頭, 四川省 大足石窟 唐 光化 2년(899) 명의 불좌상 등에서 볼 수 있으며⁵³ 五代, 宋, 明代에까지 그 전통이 이어졌다.

같은 II형식의 지권인상으로는 최근 불상 내부에서 '中和三年癸卯此像夏節柒金着成', '誓願大角干主燈身□彌右座妃主燈身□'라는 목서가 발견되어 883년에 대각간의 서원으로 조성되었음이 밝혀진 해인사 범보전과 대적광전의 목조비로자나불상 2구가 있다^{도21}. 이 불상은 2구가 한 쌍으로 발견되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목조불상으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⁵¹ 계주는 일반적으로 禪宗에서 말하는 傳佛心印을 상징하며 이것이 계주의 원뜻과 결합되어 불상의 새로운 머리 형식을 만들어 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계주를 선종과 연관지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崔完秀, 『髻珠考』, 『美術資料』 15호(1971), pp.21-29.

⁵² 廣元市文物管理所 中國社會科學院宗教所佛教室, 「千佛崖石窟調查記」, 『文物』(1990年 第6期), pp.6-7.

⁵³ 『大足石刻雕塑全集』 1권 北山石窟(重慶出版社, 1999), 圖20 참조.



도 21 해인사 범보전 목조비로자나불상,
883년, 높이 128cm,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도 22 비로사 석조비로자나불상,
9세기 중엽, 높이 117cm,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동

예이나 불상의 발원자나 조성연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해석이 없다.⁵⁴ 전반적으로 아담한 크기로 얼굴과 신체표현이 둥글고 풍만한 편이며 유려하면서도 도드라지게 표현된 편단우견의 옷주름 표현 등에서 9세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다만 왼손을 앞으로 약간 돌리고 손바닥이 보이는 지권인 형태는 8세기 후반의 불국사 지권인상이나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8세기 후반의 금동비로자나불입상 등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동화사 불상 계통의 지권인상과 같은 양식을 보여주면서 定印像이 함께 안치되어 있는 특이한 예는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에 위치한 비로사의 대적광전에서 볼 수 있다^{도22}. 이 지권인 불상은 원래 석조불상으로 처음에 호분을 칠했다가 그 위에 다시 도금을 입힌 것으로 세부표현을 살펴보기가 어렵다. 전반적으로 단정하고 아담한 크기의 불상으로 머리 위의 육계는 삼각형태로 되어 있으며 2개의 계주가 장식되었으나 모두 후보된 것이다. 특히 둥글고 작은 얼굴표현과 통견의 법의에 가슴 위로 내의와 띠매듭이 보이고 두 팔과 두 다리 끝 부분에 옷주름이 밀집되게 표현된 것은 동화사 비로암 불상과 같은 형식이나 두 다리 사이에

⁵⁴ 『9세기 해인사 비로자나불의 역사성과 예술성』(해인사, 2005. 12. 10), pp.1-77.



도 23 취서사 석조비로자나불상.
867년경. 높이 108cm,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표현된 부채꼴 모양의 옷주름은 석굴암 불상형식을 따른 것이다.

통견의 지권인상 외에 좌권인상에서도 동화사 상 계통에 속하는 예들이 발견되는데 강원도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상은 통견 안에 내의와 띠매듭이 모두 표현되었으며 양쪽 소매와 결가부좌한 두 다리 위에 일률적으로 표현된 평행의 굽은 옷주름선 등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형식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손을 가슴 앞에 꼭 붙이고 있는 좌권인의 형태는 손의 위치만 다를 뿐 동화사 비로암상이나 불곡사상 등 통일신라 후기 비로자나불상과 유사하다. 홍천 물걸리 불상이나 증심사 불상과 같은 좌권인상은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얹어 놓은 降魔坐를 하고 있는 데 반하여 통일신라시대의 비로자나불상은 대부분 오른쪽 다리를 위에 놓은 吉祥坐를 하고 있다.

항마좌 불상의 경우는 2예에 불과하지만 모두 좌권인을 하고 통견의 법의를 걸치고 있다. 길상좌 중에는 심복사 불상이나 불곡사 불상, 서혈사 발견의 불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발이 오른쪽 다리 밑으로 들어가 법의의 옷자락에 가려서 표현되지 않은 반가좌를 한 예들도 포함되어 있다.

(2) 취서사 불상 계통의 지권인상

동화사 비로암 불상과 같이 II형식에 속하는 통견의 지권인상이나 법의의 옷주름에서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취서사의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다²³. 이 불상은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함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신라 헌덕왕 때의 侍中이었던 金亮宗의 막내딸인 明端이 발원하여 867년에 석탑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⁵⁵ 얼굴을 약간 안으로 당겨 반듯하게 앉아 있는 불상으로 각이 진 어깨에 걸쳐진 통견의 법의는 양쪽 팔 위로 걸쳐서 결가부좌한 다리에까지 내려와

⁵⁵ 今西 龍, 「驚棲寺舍利石盒刻記」, 『新羅史研究』(京城: 近澤書店, 1933. 6), pp.523-525; 鄭永鎬, 「驚棲寺의 塔像과 石燈」, 『考古美術』 7-4호(1966. 4), p.120.

있는데 가슴 위에 대각선으로 걸쳐 입은 내의와 띠매듭, U자형으로 늘어진 굵은 옷깃에 꽃무늬가 장식된 점이나 양 다리 사이의 옷주름이 물결처럼 표현된 점 등이 특이하다. 이 불상에 보이는 네모반듯한 신체표현이나 옷깃과 내의의 끝단에 꽃무늬가 장식된 점, 형식화된 옷주름과 내의의 띠매듭 표현 등 전체적인 특징은 경기도 평택시 심복사에 있는 통일신라 말의 석조비로자나불상과 유사한 면을 보여준다.

취서사 불상과 같이 어깨와 다리의 폭에 크게 차이가 없고 두 팔을 몸에 붙이면서 허리의 표현이 없어 방형에 가까운 佛身의 모습이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양 팔에 걸쳐 표현된 띠주름의 옷주름 형식, 두 다리 사이에 모아진 옷자락, 지권인의 형태 등은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석조비로자나불상과① 경상북도 영천 화남리 석조비로자나불상 등 9세기의 통일신라 후기 불상에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통일신라 후기에는 왕실과 중앙귀족들이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의거하여舍利와 함께 小塔이나 陀羅尼를 봉안하는 願塔의 건립과 함께 비로자나불상을 조성한 예들이 몇몇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855년에 문성왕이 건립한 창림사지 삼층석탑과 863년에 경문왕이 민애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동화사의 삼층석탑, 그리고 왕실 발원의 불상은 아니지만 865년에 경기도 철원지방의 신도들에 의한 도피안사 삼층석탑, 867년에 伊滄 金亮宗의 딸 明端의 발원에 의해 건립된 취서사 삼층석탑 등이 비로자나불상과 함께 건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원탑들이다.⁵⁶ 특히 동화사 불상을 비롯한 취서사, 도피안사 불상 등 9세기 중엽의 조상명이 있는 비로자나불상이 통일신라 후기의 景文王代(861-875)에 조성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9세기 후반에 즉위한 경문왕은 신라 왕실의 안정과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불교정책으로 신라 원성왕의 원찰인 경주 崇福寺를 중창하였으며 868년에는 전라남도 담양의 開仙寺 석등을 건립했을 뿐 아니라 870년에는 전라남도 장흥의 寶林寺에 헌안왕의 극락왕생을 위한 삼층석탑을 세우는 등 경주지역은 물론이고 각 지방에서도 많은 佛事가 행해졌다. 또 871년에는 황룡사 9층목탑을 중수하여 화엄종의 재편을 추진하는 반면에 朗慧, 無染 禪師를 국사로 임명하여 선종 불교세력의 회유를 시도한 점에서 경문왕의 불교정책은 진골귀족의 세력을 규합하여 왕권을 안정시키면서 기존에 있었던 교종의 불교계를 재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⁵⁷ 경문왕의 왕권강화는 진골귀족들의 끊임없는 반란이 계속되

⁵⁶ 丁元卿, 「新羅 景文王代の 願塔建立」, 『釜山直轄市立博物館年報』 5호(1982), pp.62-69; 金昌謙, 「新羅 景文王代 「修造役事」의 政治史的 考察」,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1988), pp.69-70.

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8세기 전반의 전제 정치체제로 완전한 복귀는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로자나불상은 9세기 중엽경에 경문왕의 왕권강화 정책과 함께 화엄사상을 비롯한 대승불교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유행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3) 인도식 착의법의 지권인상

지권인의 형태는 II형식에 속하면서 법의의 착의법에서 동화사상이나 취서사상과는 다른 계통에 속하는 불상을 말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석조비로자나불상은 도²⁴ 출토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근엄한 얼굴과 당당한 조형감을 보여주나 어깨와 무릎의 폭이 줄어들어 약간 왜소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다. 특히 통견의 법의가 양 어깨 위에서 약간 접혀지면서 뒤로 넘겨진 표현은 경주 안압지 출토의 금동삼존불상이나 법륜사 금당벽화의 제6호벽인 〈아미타삼존도〉의 본존불 등 8세기 초의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또한 둥근 얼굴과 작고 아담한 신체표현 등에서는 758년으로 추정되는 김천시 갈항사지 석불좌상과도¹⁸ 양식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어 시대가 올라가는 요소도 보인다. 그러나 이 석조상에서는 옷주름 형태가 佛身에 따라 유기적으로 표현되었다기보다는 간략해지고 형식화된 경향이 나타나 있다.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의 서혈사지에서 발견된 것으로⁵⁸ 현재 머리부분이 결실되어 있는 공주박물관 소장의 석조비로자나불상도²⁵ 역시 지권인의 형태나 법의의 착의법에서 같은 형식을 보여준다. 서혈사지 불상에서는 결가부좌한 다리의 양감이 보다 강조되어 있고 다리의 폭이 좁아지면서 더욱 두드러진 네모난 신체표현은 취서사 불상 계통의 지권인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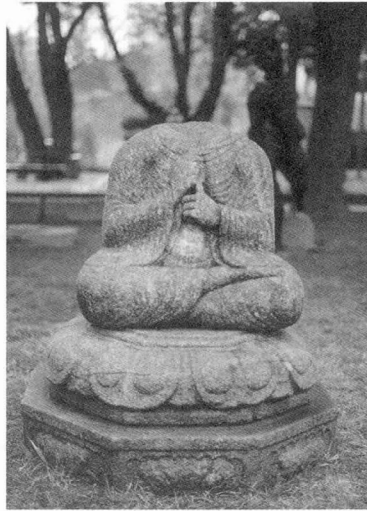
한편, 비로자나불상 형식에서는 보기 드문 입상으로 표현된 예들이 4구 정도 알려져 있다. 그중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동비로자나불입상은 도²⁶ 신체비례에 균형이 잡혀 있으면서 당당한 불신의 표현이나 풍만한 얼굴과 양감, 옷주름의 사실적인 표현 등에서 대체로 통일신라 전성기의 불상양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불상에서는 양식상 신체가 약간 둔중하고 옷주름의 볼륨감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 있고 지권인의 형태에서

⁵⁷ 曹凡煥, 「新羅下代 景文王之 佛教政策」, 『新羅文化』 16집(1999), p.72; 金志垠, 「新羅 景文王之 王權強化政策」, 『慶州史學』 21집(2002. 12), pp.33-47.

⁵⁸ 조원창, 「西穴寺址出土 石佛像에 대한 一考察」, 『歷史와 歷史教育』 3·4호 합집(1999. 6), pp.135-159.



도 24 석조비로자나불상,
9세기 전반, 높이 116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5 서철사 석조비로자나불상,
9세기 전반, 높이 65cm,
충남 공주시 용진동 발견,
국립공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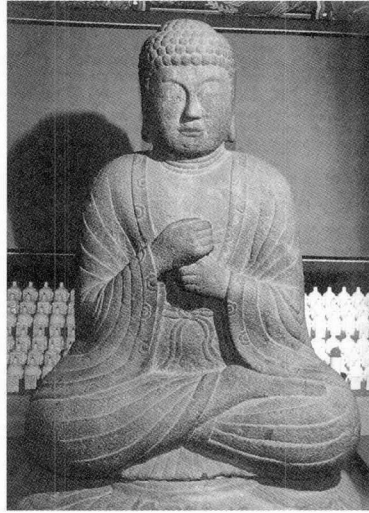
도 26 금동비로자나불입상,
8세기 후반,
높이 52.8cm,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도 8세기 후반의 비로자나불상에 나타나는 특징이 보인다.

3) III형식의 지권인상

III형식의 지권인은 오른손과 왼손을 서로 맞붙여서 비스듬히 쥐고 있어 왼손의 둘째손가락이 거의 보이지 않거나 손등을 살짝 감싸고 있는 형태로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의 비로자나불상에 많이 나타난다. III형식의 지권인상 중 경주국립박물관 소장의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은 편단우견의 법의가 가슴과 다리 위로 흘러내려와 대좌까지 덮고 있는 상현좌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²⁷. 둥근 얼굴이나 각이 진 이마, 왼쪽 어깨 위에서 한 번 접혀진 편단우견의 법의 등에서 기본적으로 8세기 중엽의 갈항사 석불좌상과 유사하지만 머리의 나발을 격자문으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옷주름선이 일률적이면서 투박하게 표현되어 있어 9세기 전반까지 내려다 볼 수 있는 상이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상은²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867년경의 취서사 불상과 얼굴표현이나 불신, 법의의 옷주름 표현 등에서 유사한 면이 있으나 오른손이 왼손의 둘째손가락을 쥐면서 손등의 일부를 감싸고 있는 지권인의 형태는 III형식에 속한다. 이와 유사한 지권인의 형태는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석조비로자나불상을^① 비롯



도 27 금동비로자나불상,
9세기 전반,
높이 12cm,
국립경주박물관

도 28 심복사 석조비로자나
불상, 9세기 후반-
10세기 초,
높이 121cm,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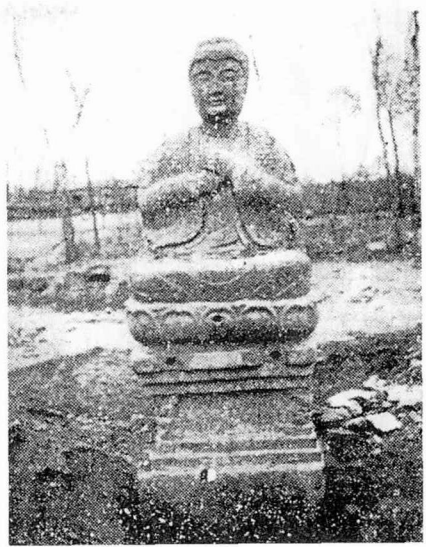
하여 경상북도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상과 경상북도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상, 전라남도 광주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상, 충청남도 당진 영탑사 금동삼존불의 중존 등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에 해당하는 불상에 주로 나타난다. 경상남도 진양군 수곡면의 한산사 석조비로자나불상과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의 동악사 석조비로자나불상도 손의 위치만 서로 바뀌어 있을 뿐, 두 손을 가슴 앞에 붙이고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히 쥐고 있는 점이나 편단우견의 법의를 입은 아담하고 왜소한 체구, 형식화된 옷주름 표현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 중국에서도 唐末 이후 遼寧省 興城縣 中京城에 있는 遼代의 8각13층의 白塔 탑신부에 있는 보관여래형 지권인상이나 河南省 獲嘉縣 大羅召村에서 발견된 北宋의 여래형 좌권인상도²⁹ 등에 나타나는 지권인의 형태이다.

현재 불상의 머리부분이 완전히 결실된 채 佛身만 남아 있는 경주 창림사지 석조비로자나불상 2구와 경주 건천읍 신평리 석조비로자나불상, 경북대학박물관 앞 정원에 전시되어 있는 일련의 석조 지권인상도^② 통견의 법의를 걸친 좌상으로 III형식에 넣을 수 있다. 창림사지 비로자나불상 2구는 높이 약 75cm로 크기가 거의 똑같고 양 어깨와 걸가부좌한 두 다리 폭의 차이가 적으며 네모난 신체구조와 형식적인 옷주름 표현 등에서 취서사 불상 계통의 지권인상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창림사지 비로자나불상은 삼층석탑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無垢淨塔願記』에 의해 85년에 탑과 함께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하는데⁵⁹ 불상의 양식적 특징에서도 9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다. 창림사와 신평리의 비로자나불상은 통일신라 후기 비로자나불상이 대부분 경상북도에 분포되어 있는 데 반하여 경주 남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불국사 비로자나불상과 함께 경주 지역에서 조성된 보기 드문 중요한 예이다.

입상의 비로자나불상 중에서 III형식에 속하는 것은 2예가 있는데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금동비로자나불입상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좌권인을 하고 서 있는 모습으로 통견의 범의는 가슴 앞에서 일률적인 U자형으로 흘러내려 단순화고 형식화된 요소가 나타나 있다. 전라남도 구례군 대전리에 있는 통일신라 후기의 석조비로자나불입상도 일부 파손되었지만 유사한 범의 착의법과 지권인 형태, 형식화된 옷주름 등이 보인다.

또 한편, 9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충청북도 청주시 탑동 삼층석탑과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청암사 수도암 약광전 삼층석탑의 초층탑신에서도 오방불의 하나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권인상이 표현되어 있다.⁶⁰ 이외에도 III형식에 속하면서 왼손을 쥐고 있는 오른손의 둘째손가락을 약간 세우고 있는 경북대학교 소장의 금동 지권인상이라든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분명하게 표현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철조 지권인상 또는 두 손으로 獨鉤杵를 쥐고 있는 특이한 형태의 지권인상⁶¹ 등 고려시대의 예들이 다수 남아 있다.



도 29 여래형 좌권인상, 복숭.
河南省 獲嘉縣 大羅召村 발견

4) IV형식의 지권인상

IV형식은 약간 변형된 지권인 형태로 두 손의 손바닥을 모두 밖으로 향한 채 한 손으로 둘째손가락의 끝을 살짝 잡고 있는 모습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입상의 금동비로자나불상은⁶⁰ 통통한 얼굴에 허리 밑으로 U자형의 옷주름이 일률적으로 늘어지면서 끝부분이 약간 벌어져 있어 통일신라 전성기 불상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나 얼굴이 넓고 각이 진 어깨로 인해 전반적으로 네모나고 납작한 조형감을 준다. 지권인의 형태에서도 두 손 모두 손

⁵⁹ 末松保和, 「新羅 昌林寺 無垢淨塔願記について」, 『靑丘學叢』 15호(1934. 2), pp.186-188.

⁶⁰ 李淑姬, 「統一新羅時代 五方佛의 圖像 研究」, 『미술사연구』 16호(2002. 12), pp.3-44.

⁶¹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번호 신수품 13568번.



도 30 금동비로자나불입상,
9세기 후반, 높이 20cm,
국립중앙박물관
도 31 선각비로자나불상,
9세기 후반-10세기 초,
높이 178cm,
대구 영남대학교박물관

바닥을 앞으로 향한 채 손가락 끝이 파손된 왼손 쪽으로 오른손이 살짝 구부리고 있다. 이와 같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표현되었거나 또는 왼손의 손바닥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지권인의 형태는 경상북도 상주 남장사의 철조비로자나불상이나 청주 청화사의 보관여래형 비로자나불상 등 고려시대의 불상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선각 비로자나불상^{도31} 또한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직각이 되게 세우되, 둘째손가락의 끝부분을 왼손 전체로 누르면서 잡고 있는 듯한 변형된 좌권인 상으로 IV형식에 넣을 수 있다. 단편으로 남아 있는 바위 면에 선각된 것으로 넓은 연판문으로 구성된 연화대좌, 간략한 이중의 원형광배 등은 시대가 내려가는 요소이며 특히 넓고 끝이 뾰족한 연화문은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863년의 금동사리함 복면에 나타나는 비로자나불상의 대좌 형식과 유사하므로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합장하고 있듯이, 오른손으로 왼손 전체를 감싸면서 오른손 둘째손가락을 약간 구부리고 있거나 양쪽 둘째손가락만 곧추 세우고 있는 지권인 형태는 고려 후기 또는 조선 시대 불상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1626년에 조성된 조선 후기의 범주사 소조비로자나불좌상을 비롯하여 1628년에 조성된 수종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1633년의 선운사 목조 비로자나불상, 1636년의 화엄사 대웅전 목조 비로자나불좌상 등에서 볼 수 있다.



도 32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상, 9세기 초, 높이 251cm,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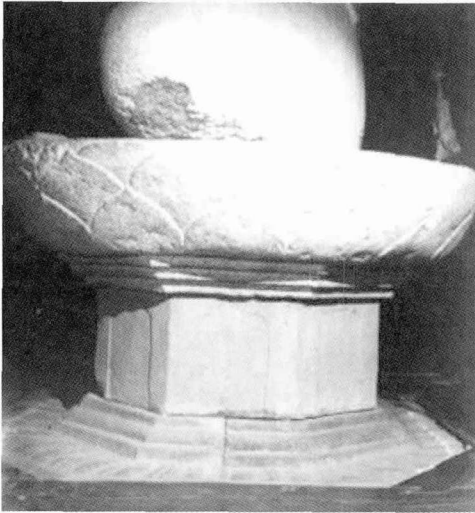
도 33 금강계 대일여래, 平安時代,
높이 161cm,
일본 京都 高野山 金剛峯寺

3. 보관여래형 지권인 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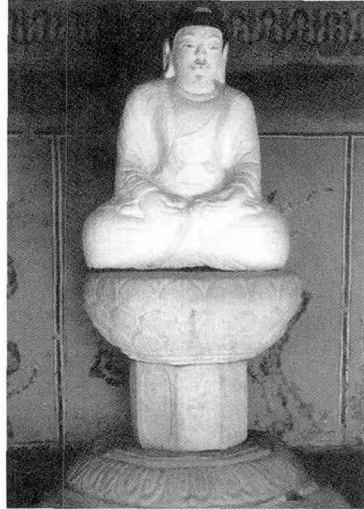
보관여래형의 지권인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으나 여래의 착의법을 하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여래형 지권인상에 포함된다. 보관여래형 지권인상에서는 I형식의 지권인을 거의 볼 수 없는 반면에 II, III형식이 주로 나타난다. 이 보관여래형 지권인에 대해서는 인도에 아직까지 알려진 확실한 예가 없다는 점에서 중국 唐代 則天武后 시기에 일시적으로 유행한 보관 축지인상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唐代에 성립된 새로운 불상 형식으로 추정할 바 있다.⁶²

경상북도 청암사 수도암의 대적광전에 안치된 석조비로자나불상은 대좌를 포함하여 약 4m에 이르는 불상으로 불신에 비해 머리부분이 조금 크며 결가부좌한 두 다리가 낮고 깊어도 알아 전반적으로 신체비례가 맞지 않은 편이다^{도32}. 『靑巖寺事蹟碑』에 의하면, 청암사는 신라 헌덕왕 3년(859)에 도선국사가 쌍계사와 함께 창건한 절이며 비로자나불상은 9세기에

⁶² 金理那·李淑姬, 앞의 논문, pp.251-253.



도 32-1 대좌



도 34 관룡사 석불좌상, 772년,
높이 110cm,
경남 창령군 창령읍 옥천리

경상북도 거창군 가북면 북석리에서 조상한 것으로 한 노승이 등에 짊어지고 가져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진다.⁶³

소발의 머리 위에는 낮은 육계가 놓여 있고 머리 주위로는 낮은 층단이 띠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그 위로 작은 구멍이 돌아가며 뚫려 있다. 이러한 층단과 구멍의 흔적은 일본 헤이안시대에 크게 유행한 보관불상의 예들을^{도33} 통해서 볼 때 머리 위의 층단에는 원래 금속제의 보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넓은 어깨와 양감 있는 몸체에 걸친 통견의 법의는 양쪽 어깨 위에서 옷깃이 몇 번 접히면서 양 팔을 거쳐 간략해지는 옷주름선의 표현 등에서 양식상 형식화된 불상양식을 보여준다. 지권인을 하고 있는 두 손 사이로는 내외와 내의를 묶은 띠매듭이 보이며 두 손 사이의 간격은 8세기 중엽의 석남사상보다는 좁아진 편으로 II 형식에 속한다.

이 불상의 조성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큼직한 단판의 연화문으로 이루어진 팔각 연화대좌의 도32-1 상대와 眼象이 조각된 중대석의 표현에서 경상남도 창령군 창령읍에 있는

⁶³ 李弘植, 「修道庵 石造毘盧舍那佛像」, 『史學研究』 2호(1964. 12), pp.103-108.



도 35 금동사리함의 보관여래형 비로자나불상,
863년경,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발건,
국립대구박물관



도 35-1 도면

관룡사 석불좌상의 도³⁴ 대좌와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특히 관룡사 석불좌상의 대좌 중대석에서 “大歷七年壬子四月 十八日中不還法師 □□法師并二人應 □□□□成內彌勒”이라는 명문이 최근 발견되었다. 이 내용에 의하면, 772년 4월 18일에 不還法師 두 명이 미륵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⁶⁴ 따라서 청암사 수도암의 비로자나불상은 양식상 8세기 후반으로 올려다 볼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보관여래형의 비로자나불상이자 가장 오래된 예라 할 수 있다.

보관여래형의 지권인상으로 연대가 확실한 통일신라시대의 예는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의 초층탑신에서 발견된 863년명의 금동사리함의 복면에서 볼 수 있다(도^{35, 35-1}). 복면에 선조된 지권인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체에 비해 결기부좌한 두 다리가 작고 왜소하게 표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상반신이 크고 길어 보이는 특징이 있다. 머리 위에는 당초문이 장식된 높은 보관 밑으로 앞머리가 내려와 있고 양쪽 귀 좌우로 관대가 길게 뻗어나와 있다. 얼굴은 둥근 편으로 가늘고 긴 눈과 작은 코, 도톰한 입술이 표현되었고 통견으로 걸친 법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흘러내리면서 양 무릎을 덮고 있다. 두 손은 가슴 앞에 붙여서 지권

⁶⁴ 『文字로 본 新羅』(國立慶州博物館, 2002), p.200, 圖391 참조.

인을 취하고 있는데 오른손이 왼손의 둘째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형태는 청암사 수도암의 비로자나불상과 유사한 것으로 II형식에 속한다.

동화사 금동사리함의 보관여래형 지권인상과 비교될 만한 중국의 예는 陝西省 扶風縣 法門寺의 8각13층 전탑의 지궁 후실에서 발견된 9세기 중엽경의 금동사리함에 새겨진 보관여래형 지권인상^{도8} 있다. 그러나 법문사 사리함의 지권인상은 冠帽 형식의 관을 쓰고 蓮花座와 獅子座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좌우에 보살, 명왕, 공양인, 동자, 사미와 같은 상들이 서 있는 복잡한 구도를 하고 있는 점에서 동화사 금동사리함의 지권인상과는 도상적으로나 양식상으로 유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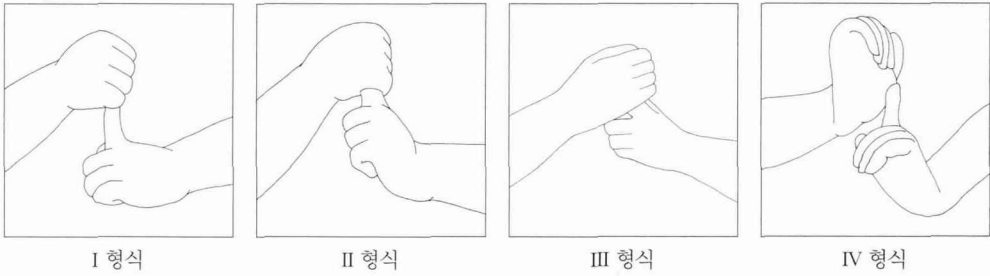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 지권인상 중에서 冠帽를 쓰고 있는 특이한 예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정하동에 있는 선각비로자나불상이 알려져 있다. 이 마애불상은 높이 323cm로 평평한 바위면에 얇게 선각되어 있는 것으로 II형식의 지권인을 한 마애불로서는 대구 영남대학교 소장 선각비로자나불상과 함께 보기 드문 예에 속한다. 현재 머리부분은 심하게 파손되어 있고 바위면 자체가 굴곡이 있어 冠帽를 쓰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육계로 보기에 남아 있는 흔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 이 불상은 통견으로 걸친 법의가 좌우대칭을 이루면서 옷주름이 다소 형식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어깨는 당당하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지 않았고 조각기법도 유려한 편으로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통일신라시대의 지권인 불좌상을 중심으로 그 연원과 존명을 살펴보고 머리와 지권인의 형태에 따라 각각 유형별로 나누어서 각 상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통하여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신라적인 변용을 살펴보았다.

통일신라시대의 비로자나불상은 인도와 중국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나 지권인의 수인은 『금강정경』 계통의 밀교경전에 의거한 것으로 밀교의 금강계 대일여래와의 관련성을 입증해 준다. 이는 화엄종과 중기밀교와의 깊은 연관성 속에서 화엄의 비로자나불이 밀교경전의 의례에 의해 여래형의 지권인상으로 형상화되어 등장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래형의 지권인상은 766년명의 현존 最古의 석남사상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한천사, 불국사 비로자나불상으로 이어지면서 9세기 중엽에는 보림사 비로자나불상을 비롯한 조성



도 36 지권인의 형태

명을 가진 불상이 조성되었으며 통일신라 후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여래형의 지권인상은 법의를 통견 또는 우견편단으로 입었든지 간에 지권인상이 좌권인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 법의의 착의법이 수인의 형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다. 결가부좌한 두 다리 사이에 표현된 부채꼴 모양의 옷주름은 석굴암 본존불의 양식을 따른 것으로 통일신라 후기의 비로자나불좌상에 대부분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항마촉지인 불좌상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시대적인 특징이다. 입상의 경우는 그 예가 매우 적지만 예외 없이 통견의 법의에 지권인을 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은 지권인의 형태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경전상의 의례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시기에 따라 유행하는 형식이 있어 시대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도36}. 오른손으로 왼손의 둘째손가락 끝부분만 쥐고 곧바로 세운 것으로 두 손 사이의 간격이 많이 벌어진 지권인을 I형식으로 하고, II형식은 I형식과 기본적으로 같으나 두 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 지권인, III형식은 오른손과 왼손을 맞붙여서 비스듬히 쥐고 있는 지권인, IV형식은 두 손의 손바닥을 모두 밖으로 향한 채 지권인을 하고 있는 형태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I형식은 석남사상과 불국사 불상 등 8세기의 여래형 지권인상에서 볼 수 있는 반면에 보관여래형의 지권인상에는 나타나지 않다는 것은 여래형보다 늦게 출현하였음을 말해준다. II형식과 III형식은 8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9세기 중엽 이후의 통일신라후기 비로자나불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동화사 비로암 불상과 취서사 불상 계통의 지권인상은 법의의 옷주름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양식적으로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IV형식은 약간 변형된 지권인 형태로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의 불상에 주로 나타나고 있어 시대가 내려가는 요소가 있다. 이와 같이 4가지 유형의 지권인은 대체로 I형식에서 II, III형식으로 변형되면서 함께 공존하였으며 IV형식과 같은 변형을 거쳐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면 오른손으로 왼손

전체를 감싸면서 합장하고 있듯이 오른손 둘째손가락을 약간 구부리고 있거나 양쪽 둘째손가락만 곧추 세우고 있는 지권인 형태로 변형되면서 이어졌다.

현존하는 유물을 보면, 보살형과 보관여래형의 지권인상의 예가 매우 적은 데 반하여 여래형의 비로자나불상이 통일신라 후기에 크게 유행하게 되는 데에는 당시 불교정책이나 불교신앙의 흐름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7세기 신라 때부터 왕실이나 귀족세력에 기반을 두고 있던 華嚴이나 瑜伽, 戒律 등을 비롯한 대승불교가 크게 성행함에 따라 8세기 중엽에 전해진 중기밀교와 그 도상이 독립된 하나의 종파로서의 이론적인 체계와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화엄사상에 자연스럽게 수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불교계는 석남사상이나 <신라화엄경변상도>의 조상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왕실이나 진골 귀족층이 아닌 승려나 그 지역의 檀越들에 의해 불상이 조성되는 등 불교신앙과 佛事가 지방으로 점차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9세기 중엽에 이르러 경문왕대의 왕권강화 정책과 함께 화엄사상을 비롯한 대승불교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자나불이 집중적으로 조성되면서 통일신라 후기에 유행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기밀교는 화엄사상과 교리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많을 뿐 아니라 통일신라 후기에 전래된 禪사상에 화엄적인 경향이 강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중기밀교와 교학불교로서의 대승불교 사상은 쉽게 융화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융화현상에 따라 통일신라시대의 비로자나불상은 화엄종과 선종 사찰의 본존으로 예배되었다. 이는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이 범신불의 개념으로 종파를 초월한 새로운 신앙의 대상으로 등장하여 비록 지권인을 취하고 있더라도 밀교의 금강계 대일여래로 발전하지는 않았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렇듯, 통일신라시대의 비로자나불상은 불교신앙의 시대별 추이에 따라 화엄사상과 융화하면서 그 성격과 의미가 신라적으로 변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제어(key words) — 통일신라시대(The Unified Silla Dynasty), 비로자나불(Vairocana), 지권인(jigwonin), 화엄사상(Huayen School), 밀교도상

▣ 투고일 2006년 7월 18일 | 심사일 2006년 7월 21일 | 심사완료일 2006년 8월 10일 ▣

표 1 통일신라시대 여래형 비로자나불상

명칭	연대	수인형식	재질	높이 (cm)	형식						소재지
					구성	머리	자세	법의	광배	대좌	
石南寺 비로자나불상	766	지권인 (I형식)	석조	108	독존	여래형	길상좌	통견	주형 광배	팔각 연화 대좌	원소재지 석남사 관음암/현재 경 상남도 산청군 삼 장면 내원사
佛國寺 비로자나불상	8세기 후반 - 9세기 초	좌권인 (I형식)	금동	177	독존	여래형	길상좌	편단 우견	亡失	亡失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일본 東京國立博物館 비로자나불입상	8세기 후반	지권인 (II형식)	금동	52.8	독존	여래형	입상	통견	亡失	亡失	원소재지 불명
국립중앙박물관 비로자나불좌상	9세기 전반	지권인 (II형식)	석조	116	독존	여래형	길상좌	통견	주형 광배	팔각 연화 대좌	원소재지 불명
西穴寺 비로자나불상	9세기 전반	지권인 (II형식)	석조	현 65	독존	亡失	길상좌	통견	亡失	亡失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발견/ 현재 국립공주박 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비로자나불좌상	9세기 전반	지권인 (III형식)	금동	12	독존	여래형	길상좌	편단 우견	亡失	裳懸 座	원소재지 불명
昌林寺址 비로자나불상 2구	855	지권인 (III형식)	석조	79	독존	亡失	길상좌	통견	亡失	亡失	국립경주박물관
桐華寺 毘盧庵 비로자나불상	863년 경	지권인 (II형식)	석조	129	독존	여래형	길상좌	통견	주형 광배	팔각 연화 대좌	대구시 동구 도학동 산 124
鷲棲寺 비로자나불상	867년 경	지권인 (II형식)	석조	108	독존	여래형	길상좌	통견	亡失	팔각 연화 대좌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海印寺 비로자나불상	883년	지권인 (II형식)	목조	128	2구	여래형	길상좌	편단 우견	亡失	亡失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佛谷寺 비로자나불상	9세기 중엽	지권인 (II형식)	석조	103	독존	여래형	길상좌	통견	亡失	팔각 연화 대좌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
毘盧寺 비로자나불상	9세기 중엽	지권인 (II형식)	석조	117	독존	여래형	길상좌	통견	주형 광배	팔각 연화 대좌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가동 산 13
薪坪里 비로자나불상	9세기 후반	지권인 (III형식)	석조	100	독존	亡失	길상좌	통견	亡失	亡失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 건천읍 신평리
覺淵寺 비로자나불상	9세기 후반	지권인 (II형식)	석조	128	독존	여래형	길마좌	편단 우견	주형 광배	팔각 연화 대좌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대성리 34
永川 華南洞 비로자나불상	9세기 후반	지권인 (II형식)	석조	90	독존	여래형	길상좌	통견	亡失	팔각 연화 대좌	경상북도 영천시 신령면 화남동

星州 金鳳里 비로자나불상	9세기 후반	지권인 (III형식)	석조	196	독존	여래형	길상좌	통견	주형 광배	원형 연화 대좌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금봉리
경북대학교박물관 비로자나불상①	9세기 후반	지권인 (III형식)	석조	167	독존	여래형	길상좌	통견	주형 광배	팔각 연화 대좌	원소제지 불명
洪川 物傑里 비로자나불상	9세기 후반	좌권인 (II형식)	석조	111	독존	여래형	항마좌	통견	亡失	팔각 연화 대좌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9-1
경주박물관 비로자나불입상	9세기 후반	좌권인 (III형식)	석조	20	독존	여래형	입상	통견	亡失	亡失	원소제지 불명
경북대학교 비로자나불상 2구②	9세기 후반	지권인 (III형식)	석조	56.60	독존	亡失	길상좌	통견	亡失	亡失	원소제지 불명
국립중앙박물관 비로자나불입상	9세기 후반	지권인 (IV형식)	금동	20	독존	여래형	입상	통견	亡失	亡失	원소제지 불명
安東 磨崖洞 비로자나불상	9세기 후반	지권인 (II형식)	석조	170	독존	여래형	길상좌	통견	亡失	팔각 연화 대좌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寒山寺 비로자나불상	9세기 후반	좌권인 (III형식)	석조	139	독존	여래형	길상좌	편단 우견	亡失	사각 연화 대좌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내리
東岳寺 비로자나불상	9세기 후반	지권인 (III형식)	석조	103	독존	여래형	길상좌	편단 우견	주형 광배	사각 대좌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聖穴寺 비로자나불상	9세기 후반	지권인 (III형식)	석조	82	독존	여래형	길상좌	통견	亡失	팔각 연화 대좌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덕현리
深福寺 비로자나불상	9세기 후반 - 10세 기 초	지권인 (III형식)	석조	121	독존	여래형	길상좌	통견	亡失	獅子 연화 대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龍岩寺 비로자나불상	9세기 후반 - 10세 기 초	좌권인 (II형식)	석조	114	독존	여래형	길상좌	통견	亡失	팔각 연화 대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證心寺 비로자나불상	9세기 후반 - 10세 기 초	좌권인 (III형식)	철조	90	독존	여래형	항마좌	통견	亡失	亡失	전라남도 광주시 동구 윤림동 56
구례 대전리 비로자나불상	9세기 후반 - 10세 기 초	좌권인 (III형식)	석조	190	독존	여래형	입상	통견	亡失	亡失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대전리 산 46
선각 비로자나불상	9세기 후반 - 10세 기 초	지권인 (IV형식)	마애 불	178	독존	여래형	길상좌	편단 우견	원형	이중 광배 연화 대좌	대구 영남대학교 박물관

표 2 통일신라시대 보살형 및 보관여래형 비로자나불상

명 칭	연대	수인형식	재질	높이 (cm)	형식						소재지
					구성	머리	자세	법의	광배	대좌	
〈華嚴經變相圖〉	754-755	지권인 (亡失)	회화	9	독존	보살형 /보관 여래형	좌상	亡失	이중 원형 광배	獅子 연화 대좌	호암미술관
舊關野貞 소장 비로자나불상	8세기 후반	지권인 (II형식)	금동	10	독존	보살형	길상좌	편단 우견	亡失	亡失	원소재지 불명
靑巖寺 修道庵 비로자나불상	9세기 초	지권인 (II형식)	석조	251	독존	보관 여래형	길상좌	통견	亡失	팔각 연화 대좌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513
桐華寺 毘盧庵 발견 금동사리함 비로자나불상	863년 경	지권인 (II형식)	금동		삼존	보관 여래형	길상좌	통견	이중 원형 광배	연화 대좌	대구시 동구 도학동 국립대구박물관
井下洞 마애비로자나 불상	9세기 후반 - 10세 기 초	지권인 (II형식)	석조	323	독존	보관여 래형	길상좌	통견	두광	연화 대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정하동 산 9-1

국문초록

통일신라시대의 비로자나불상은 8세기 중엽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9세기 중엽 이후의 통일신라 후기에 크게 유행하였던 불상형식이다. 그 연원은 인도와 중국에 두고 있는 것으로 원래 대승불교 경전인 『화엄경』의 법신불에서 발전한 개념이나 지권인의 수인은 중기밀교의 경전인 『금강정경』에서 채용하여 형상화된 것으로 밀교의 양계만다라 중에서 금강계의 본존불인 대일여래와 관련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금강계 대일여래의 도상이 화엄의 비로자나불상에 수용되어 통일신라시대에 널리 신앙되었다는 점은 화엄사상과 밀교가 융합되는 당시 불교사적인 배경에 따른 것으로 신라적인 변용의 한 예로 해석된다.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은 766년명의 석남사상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대부분 독존의 여래형 지권인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현재 약 50점이 알려져 있다. 그중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조상기를 가지고 있는 상으로는 859년명의 보림사 비로자나불상과 865년명의 도피안사 비로자나불상 2구밖에 없었으나 최근에 불상 복장물에서 발견된 묵서명에 의해 883년의 조성연대가 밝혀진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상 2구가 있다. 반면에 불상의 대좌나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호의 명문에 의해 간접적으로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예는 766년의 석남사 비로자나불상을 비롯하여 863년경의 동화사 비로암 비로자나불상 및 금동사리함의 비로자나불상, 867년경의 취서사 비로자나불상 등이 있다. 또 드물지만 범수사와 불국사의 삼존불상이나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함과 청암사 수도암 삼층석탑의 초층탑신에서 볼 수 있듯이, 五方佛의 하나로 등장하는 예도 있다.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은 법의를 통견 또는 우견편단으로 입었든지 간에 지권인상이 좌권인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 법의의 착의법이 수인의 형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다. 결가부좌한 두 다리 사이에 표현된 부채꼴 모양의 옷주름은 석굴암 본존불의 양식을 따른 것으로 통일신라 후기의 비로자나불좌상에 대부분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항마촉지인 불좌상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시대적인 특징이다. 입상의 경우는 그 예가 매우 적지만 예외 없이 통견의 법의에 지권인을 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은 지권인의 형태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경전상의 의례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시기에 따라 유행하는 형식이 있어 시대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오른손으로 왼손의 둘째손가락 끝부분만 쥐고 곧바로 세운 것으로 두 손 사이의 간격이 많

이 벌어진 지권인을 I형식으로 하고, II형식은 I형식과 기본적으로 같으나 두 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 지권인, III형식은 오른손과 왼손을 맞붙여서 비스듬히 쥐고 있는 지권인, IV형식은 두 손의 손바닥을 모두 밖으로 향한 채 지권인을 하고 있는 형태 등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I형식은 석남사상과 불국사 불상 등 8세기의 여래형 지권인상에서 볼 수 있는 반면에 보관여래형의 지권인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래형보다 늦게 출현하였음을 말해준다. II형식과 III형식은 8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9세기 중엽 이후의 통일신라 후기 비로자나불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동화사 비로암 불상과 취서사 불상 계통의 지권인상은 법의의 옷주름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양식적으로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IV형식은 약간 변형된 지권인 형태로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의 불상에 주로 나타나고 있어 시대가 내려가는 요소가 있다. 이와 같이 4가지 유형의 지권인은 대체로 I형식에서 II, III형식으로 변하면서 함께 공존하였으며 IV형식과 같은 변형을 거쳐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 조선 시대에 이르면 오른손으로 왼손 전체를 감싸면서 합장하고 있듯이 오른손 둘째손가락을 약간 구부리고 있거나 양쪽 둘째손가락만 곧추 세우고 있는 지권인 형태로 변형되면서 이어졌다.

현존하는 유물을 보면, 보살형과 보관여래형의 지권인상의 예가 매우 적은 데 반하여 여래형의 비로자나불상이 통일신라 후기에 크게 유행하게 되는 데에는 당시의 불교정책이나 불교신앙의 흐름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7세기 신라 때부터 왕실이나 귀족세력에 기반을 두고 있던 華嚴이나 瑜伽, 戒律 등을 비롯한 대승불교가 크게 성행함에 따라 8세기 중엽에 전해진 중기밀교와 그 도상이 독립된 하나의 종파로서의 이론적인 체계와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화엄사상에 자연스럽게 수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9세기 중엽에 이르러 경문왕대의 왕권강화 정책과 함께 화엄사상을 비롯한 대승불교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자나불이 집중적으로 조성되면서 통일신라 후기에 유행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기밀교는 화엄사상과 교리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많을 뿐 아니라 통일신라 후기에 전래된 선사상에 화엄적인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고려한다면, 중기밀교와 교학불교로서의 대승불교 사상은 쉽게 융화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융화현상에 따라 통일신라시대의 비로자나불상은 화엄종과 선종 사찰의 본존으로 예배되었던 것이다. 이는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이 범신불의 개념으로 종파를 초월한 새로운 신앙의 대상으로 등장하여 비록 지권인을 취하고 있다라도 밀교의 금강계 대일여래로 발전하지는 않았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렇듯, 통일신라시대의 비로자나불상은 불교신앙의 시대별 추이에 따라 화엄사상과 융화하면서 그 성격과 의미가 신라적으로 변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Silla Style Modifi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Vairocana Images in the Unified Silla Dynasty

Lee Sukhui

Icons of Vairocana started to appear in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and became vastly popular and long remained so in the later half of the Unified Silla that was after the middle of the 9th century. Its origin lay in India and China. The concept of Vairocana originally developed from Dharmakaya of "Avatamska Sutra", the Buddhist Scripture of Mahayana Buddhism. The mudra of 'wisdom fist' (jigwonin), however, was formed by a dopting Vairocana' hand gesture from 'Vajrasekhara Sutra', the Buddhist Scripture of the Middle Esoteric Buddhism and was related to the Maha-Vairocana, the principal image of Vajradharma among the Mandalas of the Two Worlds in Esoteric Buddhism. The Iconography of the Maha-Vairocana had been adopted in the images of Huayen Vairocana and was widely worshiped in the Unified Silla period. This was in accordance with the phenomenon of those days that Huayen School and Esoteric Buddhism were fused into one and can be interpreted as examples of Silla style modification.

Since its first appearance from statues of Seoknamsa Temple in 766, the biggest characteristic of Vairocana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was that it was mostly expressed as Yorae type jigwonin. At present, about 50 pieces are known. Among them, as statues whose period of formation was known, there were only two pieces such as Vairocana of Borimsa Temple in 859 and Vairocana of Dopiansa Temple in 865. But there were two more pieces of wooden Vairocana of Haeinsa Temple whose year of formation was known to be 883 by literary reference being recently found

in the center of the chest of Buddhist statues. On the contrary, as examples whose formation period can be assumed indirectly through expressed provisions of sarira case being found at a pedestal or a stone pagoda of Buddhist statues, there are Vairocana of Seoknamsa Temple in 766, Biroam Vairocana of Donghwas Temple and Vairocana of a gilt-bronze sarira case around 863, and Vairocana of Choiseosa Temple around 867, etc. In addition, though rare, as we can see from a gilt-bronze sarira case found in Buddha Triad of Beopjusa Temple and Bulguksa Temple or Biroam three stories' stone pagoda of Donghwas Temple and on the first floor of three stories' stone pagoda of Cheongamsa Temple, there are also examples appearing as one of the Five Directional Buddhas(Obangbul).

Icons of Vairocana in the Unified Silla Dynasty have curled the fingers of the left hand instead of right hand in some cases being baring right shoulder. So we could consider that method of wearing sacerdotal robe didn't give great influence on the types of mudra. Fan-shape's clothes folds expressed between two legs when sitting with one's legs completely crossed was made by following the form of the central Buddha of Seokguram cave. Such forms appeared in most of Vairocana at the later half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and they were also epochal characters being frequently found in bhumi-sparsa Buddha. Although there are only rare examples of standing statues, vairocana show jigwonin with the cloth which is cover up both shoulders without exception.

As the result of examining Vairocana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in 4 different types on the basis of the types of their jigwonin, the researcher found that they were basically following scriptural ceremony and also reflected popular forms at the concerned period, showing epochal changes. They can be distinguished into the following 4 forms: form I jigwonin is standing straightly with one's right hand holding only tip of the second finger of one's left hand where interval between two hands are separated much; form II is basically same as form I but it had jigwonin with closer interval between two hands; form III had jigwonin folding the right and the left hand slightly slantingly; and form IV jigwonin had palms of both hands turning toward the outside direction. Form II and form III could be most generally seen in Vairocana in the later period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after the middle of the 9th century. Especially the statues of jigwonin such as Buddhist statues of Biroam of Donghwas Temple and Chuseosa Temple showed much similarity in forms except for just a little difference in the expression of clothes folds

of sacerdotal robe. Form IV was a little changed jigwonin type, which appeared mainly in Buddhist statues after the Unified Silla Dynasty period, so it appeared in the later period. As such, in general, 4 forms of jigwonin coexisted by being changed from form I to II and III and they were developed through transformation to form IV.

Considering the existing remains, there are very few examples of the statues of jigwonin with Avalokiteśvara style and jeweled crown Yoraе style, but on the contrary, Vairocana of Yoraе style became very popular in the later period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which can be explained by means of Buddhist policy or flow of Buddhist faith of those days. According to great prevalence of Mahayana Buddhism such as Huayen School which had been believed from the 7th century Silla period, the middle period's Esoteric Buddhism being introduced in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and its iconography couldn't form its own theoretical systems and forms as an independent religious denomination, but it was united with Huayen School, just in the aspect of complementing ceremonial defect of Mohayana Buddhism. If we consider that the middle period's Esoteric Buddhism had much similarity in the aspect of doctrine to Huayen School and it also had strong tendency of Huayen of Zen priests being introduced in the later period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middle period's Esoteric Buddhism and Mahayana Buddhism as educational Buddhism could be said to have had ideological background being easily harmonized. According to such harmonization, Vairocana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was worshiped as the principal icon at temples of Huayen School and Zen Buddhism. This fact supports the interpretation that the Unified Silla Dynasty's Vairocana as a concept of Dharmakaya appeared as a new object of faith transcending denomination and although it took jigwonin, it wasn't developed as Maha-Vairocana in Vajradhatu of the middle period's Esoteric Buddhism. As such, we can see that character and meaning of Vairocana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was modified into Silla style as it became harmonized with Huayen School according to epochal trend of Buddhist faith.